농업·농촌경제 동향

2001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전문가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림경제연구원 농업통계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나누어 작성되고 해당월의 15일에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전망/통계”)

작성자: 전양홍(김경력 / 제성훈)
연락처: 3299-4240 / 팩스: 965-4895
목차

<요 약>

Ⅰ. 국제경제 동향.................................................................1
   1. 경제성장......................................................................1
   2. 고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3

Ⅱ.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6
   1. 세계농업과 농정..........................................................6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16

Ⅲ. 국내경제 동향.................................................................22
   1. 기시지표....................................................................22
   2. 물 가..........................................................................26
   3. 소 비..........................................................................31
   4. 고 용..........................................................................33

Ⅳ. 농촌경제 동향.................................................................35
   1. 농촌물가....................................................................35
   2. 능가교역조건.............................................................37
   3. 농업인력.................................................................38
   4. 농산물 수출입.............................................................40

Ⅴ.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46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46
   2. 채소류......................................................................50
   3. 과일류......................................................................65
   4. 축산.................................................................78
VI. 특별주제 ................................................................. 91

○ 김치수요의 변화와 전망 ............................................. 93
○ 최근 WTO 농업협상의 논의동향과 전망 ............................ 101

부록 ............................................................................ 109
○ 2001년 1/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 111
<요 약>

Ⅰ. 국제경제동향

○ 1/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의 성장률도 소폭 향상되었으며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전반적으로 경제의 경기둔화에 따라 아시아 신호국들로의 경제 성장도 조정을 받고 있음.

○ 미국의 1/4분기 성장률은 거의 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지난 3월의 실업률은 8.8%에서 최고 수준인 4.3%수준을 기록하였음. 일본은 "일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가 실현하였음. 중국은 브라질의 러시아, 폴란드, 아르헨티나의 외화문제로서 시작된 위기상황이 전체 중국국가들로 확산되는 양상. 중국은 1/4분기의 무역수지 흑자가 47억달러로 전년동기의 52억달러보다 감소하였음.

○ 2001년도 세계경제 증가율은 경기불안의 여파로 2000년도의 11.8%보다 3~4% 감소한 8% 수준이 될 전망.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주택시장 폭락이 일본, EU 등의 통화안정을 야기하고 있음.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수출을 통한 불황확산 시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음. 중국의 위안/달러 환율은 대미 수출부진과 엔화결하여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Ⅱ.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급속수입제한조치(일반세이프페어, SG)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 간급수입제한조치는 일본에서 최초로 발동되는 것으로 대상품목은 파, 생필요, 곰팡 등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발동기간은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200일간이다.

○ 2000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9%)하였음. 심각한 가뭄현상과 경작면적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2000년 한해동안 식량생산은 46,251만 톤으로 1999년에 비해 9%가 감소하였음. 그중 하계 식량생산량은 10,750만 톤으로 9.3%, 가을 벼생산량은 3,747만 톤으로 8.5%, 홍과생산량은 31,754만 톤으로 9%가 각각 감소되었음.

○ 호주의 곡물생산자단체인 호주곡물협의회(GCA)는 곡물, 사료, 유지종자, 두과작물을 포함한 곡물 전반의 품질보증제도 ‘그레인케어(Grain Care)’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레인케어’의 목적은 품질보증허가를 받아 마켓에서 우위성 확보, 안전성에 관한 농업경영기술 향상, 정부 식품안전규제에 적합한 품질보증제도의 농가 보급 등임.

○ EU 상설수의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영국의 가축·축산물 수출금지 연장(3월 27일까지), EU 역내 가축시장 개도금지(2주간) 등 구제역방 역대책 강화에 관한 EU 위원회 재안을 승인했음. 이번에 승인된 대 책 가운데 새로운 것은 다음 3가지임. 즉, ①EU 경역에서의 가축시장 개방 금지, ②검수성이 있는 동물(偶蹄類)의 이동을 금지하되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축장으로의 직접출하 및 농가간 직접이동은 허용, ③영국에서 다른 가맹국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소독 등임.

○ 2000/01년도 세계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이 1999/00년도보다 줄어들 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7억 3,541만톤 이 될 전망임.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39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5,514만톤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약 3,800만톤(△1.5%) 이상 감소한 수준임.

○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4% 늘어난 17억 7,647만 톤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대비 4.3% 줄 어든 2억 7,891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3,900만톤 경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 비 10.1% 감소한 3억 900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공급량 대비 재고율은 전년대비 2% 하락한 17.9%로 내려갈 전망임.

III. 국내경제동향

○ 2000년 국내총생산(GDP)는 1999년 대비 8.8% 성장한 것으로 잠정집 계되었으며 4분기에는 4.6% 성장한 것으로 추산됨. 잠재성장율이 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000년의 성장율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 그러나 경기하락은 장기적이며 이어지는 것을 전망임. 2000년 하반기의 불황은 금융기체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이 있음.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있어 2000년 하반기보다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이 급상승하고 있으나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대미 엔화환율도 동반상승하고 있어 해외시장의 가격경쟁이 격화될 전망임.

○ 농림어업은 고유가에 따른 가격상승 부진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2~3분기에 걸쳐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4분기 들어 2% 상승으로 반전되었음.

○ 2001년의 경제성장은 2000년의 8.8%보다 크게 둔화된 4.5% 내외를 기록할 전망임. 물가상승률은 4% 내외, 실업률은 4.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IV. 농촌경제동향

○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2001년 2월 112.5로서 전년동월 대비로는 서류와 과실, 화훼류의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3.2% 약화되었고 전월 대비로는 과실류와 화훼류의 판매가격이 소폭 회복세를 보여 0.9% 개선되었음.

○ 판매가격이 전년동월 대비로 약화된 것은 경기부진에 따라 가료식품 인 과실소비가 감소하였고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여파에 따른 최고기
및 돈지고기 소비감소에 의해 재소류의 소비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판매가격이 전월대비로 감소된 것은 콜업시즌을 맞아 화훼류 가격이 43.3%, 과실가격이 5.1% 상승하였고 그외의 품목도 가격이 1~1.5% 상승하였기 때문임.

○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01년 2월 133.6으로 전년동월 대비 6.5%, 전월 대비 1.3% 상승하였음.

○ 가계용품 중 크게 오른 비목은 보건의료이며 전년동월 대비 30.5% 상승하였음. 이는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른 때문임. 농업용품 중에서는 영농광업비가 전년동월 대비 15.9% 상승하였는데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유류가격 및 전기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농가교역조건은 2001년 2월 84.2를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9.1% 악화되었고 전월대비로도 0.4% 악화되었음. 교역조건이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2000년의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하락의 여파가 남아있고 데다 광우병 파동이 따른 축산물 소비감소가 중첩되어있기 때문임.

○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001년 2월까지 누계기준 229백만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12.3% 감소하였음. 농산물 수출은 184백만달러로 10.1%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수출은 돈지 구제역의 여파로 70.3%가 감소한 200백만달러에 그쳤음. 임산물 수출은 249백만달러로 1.8% 감소하였음.

○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01년 2월까지 1.422백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음. 농산물 수입은 7.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축산
물 수입은 2000년에 이어 금년에도 52.6% 증가함으로써 365백만달러를 기록하였음. 임산물은 13%가 감소한 227백만달러를 수입함.

○ 열대과일의 수입은 오렌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하였음. 열대과일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이들 품목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든 때문임. 2000년에 급증했던 열대과일 수입은 올해는 경기부진 때문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농축간물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특히 축산물 수입이 급증한 것은 경기부진과 구조적 인력 쇄골기로 교체하기로 대체됨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 배추의 1/4분기 도매가는 5톤트럭당 157만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4/4 분기보다는 4% 낮은 수준이고, 평년 1/4분기보다는 22% 낮은 수준임.

○ 4월에 죽혀서 봄배추 물량은 작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이나 저장 격을 봄배추의 출하물량이 많아 4월 봄배추 도매가는 작년 4월보다 35% 낮고, 평년 동기보다는 10% 가량 낮은 상품 5톤트럭당 24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4월에 죽혀서 봄 무 물량은 작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이나, 저장물을 출하물량이 많아 4월 봄 무 도매가는 작년 동기보다 35% 낮고 평년 동기보다는 24% 낮은 상품 5톤트럭당 2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고추의 경우 3월말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6% 적은 2만 6,300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4월 이후 도매가격은 평년과 지난 해보다 높은 화건 600g당 4,9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아울렛판은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43만 3천톤으로 추정됨. 여기에 이월량 1만 2천톤, 수입량 3만 3,800톤 (MMA 1,538톤 포함) 등 총공급량은 47만 9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산 공급량보다 약 5% 적은 수준임. 따라서 올해산 아울렛판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난지형 상품 kg당 작년보다 2% 가량 높은 1,7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사과는 2/4분기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4%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 과일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2/4분기의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배는 2/4분기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3%정도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저 장비의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2/4분기 배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수박은 2000년 초의 과일가격 폭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4~5월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9%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며 4~5월 수박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수박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수출용 토마토 등의 과제류가 일본의 경력규제 때문인지 국내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박가격은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참외의 경우에도 2000년 초의 과일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올해 4월에
출하될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7%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4월 참외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5월은 같은 시기에 출하될 전재외일 수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참외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12월 한육우 총축육두수는 158만두로 2000년 9월 171만두보다 12만두(∆7.2%), 1999년 12월보다는 36만두(∆18.5%) 감소하였음. 2001년 3월에는 147만 6천두로 3개월 전보다 11만 4천두(∆7.2%), 전년 동기보다 34만 3천두(∆18.6%) 감소하였음.

○ 한육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구제역과 수입개방에 대한 염려로 암소출산율이 하락함으로써 송아지 생산두수가 감소하였고, 최근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선호하면서 암소육출시이 증가하여 가입암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임.


○ 되지 총 사육두수는 1990년대 들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9월부터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 12월에는 821만 4천두로 3개월 전보다 15만 7천두(∆1.9%) 감소하였고, 2001년 3월에도 819만 8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6천두(∆0.2%) 감소하였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31만 1천두 (3.9%) 증가하였음.
1. 국제경제 동향

1-1. 경제성장

- 1/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의 성장률도 소폭 둔화되었으며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선진국 경제의 경기둔화에 따라 아시아 신호공업국들의 경제 성장도 조정을 받고 있음. 주식 및 환율의 동력적 커지는 편에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임.

- 미국의 1/4분기 성장률은 거의 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지난 3월의 실업률은 20개월만에 최고수준인 4.3%수준을 기록하였음. 연방준비위원회(FRB)가 금년 들어서도 서서히 정정이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예상되고 있음.

- 일본은 "일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하였음이 명백해짐. 불황의 원인은 소비부진에 있으며 소비부진의 원인은 기업의 부실화가능성→고용불안정→소비심리감각에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아직 투علا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임. 내수부진을 수출로 만화하기 위해 연화 평가절하를 유도하고 있음. 연화의 평가절하는 동아시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각국 통화의 동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음. 경기부양 정책을 계획중이지만 과거의 경우 효과가 미흡했으며 재정적자 수준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실시되기 어려움.

1) 이 저서는 농업관리센터 경제학 분야연구위원(kdkim@kri.re.kr), 재성문 연구원(alpha@kr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서작성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 중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위기상황이 전세 중남미국 가들로 확산되는 양상, 아르헨티나는 최대 수출시장인 브라질의 레알화 촉락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음. 외채가 2001년 1/4분기 현재 1200억달러 상당이며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만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997억달러의 IMF 긴급자금지원을 받았으나 실업률은 15%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계의 총파업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에 저항을 초래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추이 및 전망 (GDP 기준)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세계</td>
<td>3.4</td>
<td>3.7</td>
<td>2.4</td>
<td>3.0</td>
<td>4.3</td>
<td>3.8</td>
</tr>
<tr>
<td>선진국</td>
<td>3.0</td>
<td>3.2</td>
<td>2.7</td>
<td>2.8</td>
<td>3.9</td>
<td>2.7</td>
</tr>
<tr>
<td>미국</td>
<td>3.6</td>
<td>4.4</td>
<td>4.4</td>
<td>4.2</td>
<td>5.1</td>
<td>2.8</td>
</tr>
<tr>
<td>일본</td>
<td>5.2</td>
<td>1.9</td>
<td>△1.1</td>
<td>0.8</td>
<td>2.0</td>
<td>1.5</td>
</tr>
<tr>
<td>EU</td>
<td>1.7</td>
<td>2.6</td>
<td>2.8</td>
<td>2.2</td>
<td>3.4</td>
<td>3.0</td>
</tr>
<tr>
<td>개도국</td>
<td>6.0</td>
<td>5.1</td>
<td>1.4</td>
<td>3.9</td>
<td>6.0</td>
<td>5.2</td>
</tr>
<tr>
<td>태평양연안국</td>
<td>6.6</td>
<td>4.9</td>
<td>△5.1</td>
<td>6.0</td>
<td>7.9</td>
<td>5.3</td>
</tr>
<tr>
<td>한일</td>
<td>6.8</td>
<td>5.0</td>
<td>△6.7</td>
<td>10.7</td>
<td>9.1</td>
<td>6.1</td>
</tr>
<tr>
<td>중국</td>
<td>9.8</td>
<td>8.5</td>
<td>7.8</td>
<td>7.1</td>
<td>8.0</td>
<td>7.5</td>
</tr>
<tr>
<td>중남미</td>
<td>3.2</td>
<td>4.7</td>
<td>1.1</td>
<td>△1.0</td>
<td>3.1</td>
<td>3.6</td>
</tr>
<tr>
<td>동유럽</td>
<td>3.0</td>
<td>2.0</td>
<td>2.2</td>
<td>2.4</td>
<td>4.0</td>
<td>4.3</td>
</tr>
<tr>
<td>구소련연방</td>
<td>△3.2</td>
<td>0.8</td>
<td>△3.2</td>
<td>2.9</td>
<td>6.2</td>
<td>4.3</td>
</tr>
</tbody>
</table>

주: 1)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2) 멕시코가 제외됨.

○ 중국은 1/4분기의 무역수지 흑자가 47억달러로 전년동기의 52억달러보다 감소하였음. 수출은 14.7% 증가한 반면 수입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증가율이 17.3%에 달하였음. 세계경기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은 11.2% 증가하였음. 그러나 대미 수출부진과 엔화 점화에 따라
라 위안화 평가결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동유럽의 주요 국가인 폴란드는 서유럽의 성장률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율이 동반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루블화평가결과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을 전망.

○ 통증의 2001년 성장률은 2000년보다 부진할 전망. 세계최대 원유수입 국인 미국 및 각국의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어 원유수출액도 감소할 전망.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2.1. 교역량

○ 2001년의 세계교역 증가율은 경기불안의 여파로 2000년의 11.8%보다 3~4% 감소한 8% 수준이 될 전망. 각국의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교역량 증가율은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높음.

<table>
<thead>
<tr>
<th>세계 교역량 증가율 및 환율 동향</th>
<th>단위: %</th>
</tr>
</thead>
<tbody>
<tr>
<td>교역량</td>
<td></td>
</tr>
<tr>
<td>전세계</td>
<td>9.7</td>
</tr>
<tr>
<td>원자재</td>
<td>6.2</td>
</tr>
<tr>
<td>연료, 에너지</td>
<td>4.3</td>
</tr>
<tr>
<td>공산품</td>
<td>10.9</td>
</tr>
<tr>
<td>환율</td>
<td></td>
</tr>
<tr>
<td>엔달러</td>
<td>121.0</td>
</tr>
<tr>
<td>마르크달러</td>
<td>1.73</td>
</tr>
<tr>
<td>유로</td>
<td>0.887</td>
</tr>
</tbody>
</table>

2.2. 환율

- 미국의 경제성장둔화와 주식시장 폭락이 일본, 중남미, 동남아시아 통화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음. 브라질 선량화는 금년 들어서며 12% 평가절하되어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불안정이 야기되고 있음.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수출을 통한 불량자활 시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음.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연환율 상승에 대한 불안표출로 상승세가 일시 둔화된 상황임. 4월 12일 현재 엔/달러 환율은 125엔 내외임.

- 달러/유리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현수준(4.75%) 유지발표로 0.38달러수준에서 거리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를 면회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현재 유리지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인 2%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는 어려운 상황임.

- 중국은 1/4분기의 무역수지 흑자가 47억달러로 경년동기의 52억달러보다 감소하였음. 수출은 14.7% 증가한 반면 수입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17.3%에 달하였음. 세계경기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은 11.2% 증가하였음. 그러나 대미 수출부진과 엔화 절하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2.3. 원유가격

○ OPEC는 세계경기의 급속한 문화조정에 대응하여 목표치보다 원유생산량을 늘여 공급하고 있음. 이는 원유수출 수입증가 및 세계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

○ OPEC는 1월과 3월에 일일 생산량 기준 10만배럴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일시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원유수요 감소로 다시 하락하였음. 두바이유는 2001년 3월평균 23.46달러 수준임.

<table>
<thead>
<tr>
<th>원유 가격 동향 및 전망</th>
<th>단위: 달러/배럴</th>
</tr>
</thead>
<tbody>
<tr>
<td>WTI 유지</td>
<td>34.30</td>
</tr>
<tr>
<td>브렌트 유지</td>
<td>32.65</td>
</tr>
<tr>
<td>두바이 유지</td>
<td>30.35</td>
</tr>
</tbody>
</table>

주: 1) 2001년 전망치는 두바이, 브렌트, 알래스카산 평균유가
    2)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2001.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1. 세계농업과 농정2)

1.1. 일본 신선채소 건급수입제한조치(SG) 발동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건급수입제한조치(일반세포가드, SG)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 건급수입제한조치는 일본에서 최초로 발동되는 것임. 대상품목은 파, 생표고, 골풀 등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이며, 발동기간은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200일간 입.

○ 수입제한 방법은 일정 수입량까지는 현행대로 저용관세(파 3%, 생표고 4.3%, 골풀 6%)를 유지하고, 초과분은 고용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할당제도를 적용함. 시장점근물량은 파 5,383톤, 생표고 8,003톤, 골풀 7,943톤이며,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파 256% (225엔/kg), 생표고 266% (635엔/kg), 골풀 106% (306엔/kg)임.

○ 할당물량의 초과분에 수입되는 시기는 파가 7월, 생표고 8월, 골풀은 8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당장은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 다른가, 일본 국내의 소비가격이 상승한다면 그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조치에 대하여 생산자측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며, 소비자측과 수입업자는 발동이후 과연 일본 산지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2) 이 자료는 국제농업연구실 김태곤 부연구위원(taegon@kre.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대해서도 의문시하고 있음. 일본 경부는 농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며, WTO 협정의 규정대로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한중일 3국간 무역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2. 중국 2000년 식량생산 9% 감소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식량생산(쌀, 소맥, 옥수수, 두류, 사류)은 증가하여 농산물 수급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달성되었음. 각 지역은 시장 수급 현황에 따라 농작물 경작면적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경작작물의 경작면적이 확대, 농작물 총파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초과하였음.

○ 식량생산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품종전환에 현저하였음. 심각한 가뭄현상과 경작면적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2000년 한해동안 식량생산은 46,251만 톤으로 1999년에 비해 9%가 감소하였음. 그중 하계 식량생산량은 10,750만 톤으로 9.3%, 1기 작 버생산량은 3,747만 톤으로 8.5%, 추곡생산량은 31,754만 톤으로 9%가 각각 감산되었음.

○ 주요경제작물 중, 면화와 유자류는 증산되었고, 사탕은 감산되었음. 중국방직업 생산의 호전과 면화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면화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였음. 이는 중국 농민의 면화경작의 적극성을 고취시켜 면화 경작면적이 1999년에 비하여 30만ha가 증가하여 8.1%가 상승하였으며, 생산량은 435만 톤에 달해 1999년에 비하여 136%가 증가하였다. 사탕 경작면적은 감소하였는데, 생산량이 7,450만 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10.6%가 감소하였음.

○ 채소생산은 구조조정 과정 중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면적은 1,470만ha에 달하여, 1999년에 비하여 10.1%가 증가하였음. 또한 채소생산의 품종구조가 개선되었음.

- 축산업생산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사료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돼지가격이 1999년 하반기부터 회복되어,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고, 농민의 돼지사육에 대한 이익이 높아지면서, 돼지사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음. 소, 양, 가금 생산은 지속적으로 빠른 발전속도를 유지하였음. 육류의 총생산량은 6,270만톤에 달하여, 1989년에 비하여 5.4%가 증가하였음.

1.3. 대국의 2000년도 쌀 생산 및 수출 현황

- 대국의 1999/2000년 경기착(2000년 4월경 수확)의 쌀 식부면적은 787만 7,000라이(건년대비 21.9% 증가, 1라이는 약 0.16ha), 생산량은 524만 5,000톤(건년대비 21.0% 증가), 단수는 666kg/라이(건년대비 0.7% 감소)가 될 전망.

- 생산량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전년도 사망이 호조했던 것과 대국 중앙부에서 1999년에 완성된 파사크댐에서 물 공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00/2001년 우기착(2000년 11월~12월경 수확)에 대해서는 쌀 식부면적은 5,707만라이(건년대비 0.22% 감소), 생산량은 1,904만톤(건년대비 0.34% 증가), 단수는 334kg/라이(건년대비 0.6% 증가)로 예측하고 있음.

- 2000년 평균 미가는 고급질인 항미(차스미라이스)의 국내 도매가격이 2,073바트(1바트는 약 29원)/100kg(건년대비 25.8% 증가), FOB 가격이 571US달러/100kg(건년대비 20.9% 증가)으로 대폭 상승했음. 한편,
백미(100% A 클래스)는 국내 도대가격이 966바트/100Kg(전년대비 7.7% 감소), FOB 가격이 268US달러/100kg(전년대비 17.7% 감소)임. 고급질인 향미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한편, 저가격대의 백미가 버트남, 중국과의 경합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

○ 수출 동향을 보면, 2000년은 661만톤의 쌀이 수출되어 금액은 17,2억 US달러에 달하고 있음. 수출된 쌀 내역을 보면, 백미 244만톤, 쌍미 가공공정을 거친 쌀 168만톤, 향미 121만톤, 채미 79만톤, 갈칼 21만톤, 현미 13만톤 등임.

1.4. 호주 곡물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도입

○ 호주의 곡물생산자단체인 호주곡물협의회(GCA)는 곡물, 사료, 유지종자, 두과작물을 포함한 곡물 전반의 품질보증제도 ‘그레인케어(Grain Care)’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러한 품질보증제도는 새로운 비용과 노력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애로사항인데다 보급에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식육가공업자 등 실수요자의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음.

○ ‘그레인케어는 GCA가 중심이 되어 생산자, 유통, 집합업자, 최종사용
자대표자 그룹에 의해 수립된 ‘그레인케어’의 관리와 실시는 GCA가 담당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축산부문에서의 품질보증제도 도입을 위 한 활동이 이번 사료를 포함한 곡물분야에서 품질보증제도 도입을 촉 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레인케어’의 목적은 품질보증허가를 받아 마켓에서 우위성 확보, 안전성에 관한 농업경영기술 확장, 정부 식품안전규제에 적합한 품 질보증제도의 체계 보급 등임. 이 제도는 HACCP 방식의 품질보증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여, 각년에 수립된 전국통일 식품안전기준에 준한 품질보증방식을 취하고 있음.

○ 또, 축산과 곡물 등 복합경영농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반영하여 다 른 품질보증제도에서 채용되는 관리방법과 같은 방법을 채용하는 등, 이 제도가 환경성도 도입되도록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가동중인 ‘캐틀케어’와 ‘프록케어’로 통합한다는 구상도 있음.

1.5. 미국 ‘21세기농업생산위원회’ 신농업법 제안


○ ‘21세기농업생산위원회’는 96년 농업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이며 향후 농업 방향을 제언하고 있음. 위원회는 캐나다 루프대학의 프랭크 교수를 의장으로 하여, 미국농업연합회(AFBF)의 스탠퍼드 회장, 전국 농업인연맹(NFU)의 스완슨 회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동안 14회에 걸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6회에 걸친 공청회 등
을 거쳐 보고서를 종합하였음.

○ 보고서는 농업정책의 목적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① 고급기술 논산물의 정정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
② 농가에 양호하고 생산적인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
③ 가축경영을 생산시스템의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
④ 농촌지역에서 모든 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것

○ 이상의 농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로 다음 9개 항목을 들고 있음.
① 집중에 대한 감시, 독점금지법 등의 집행, 계약을 포함한 시장투명 성 확보에 의한 경제적인 경제환경 확보
② 미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무역장벽 감축, 시장 개방, 최대한 부가 가치를 높이는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③ 건전한 과학에 기초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쟁상대인 외국에 대해서도 건전한 과학이 기초한 정책추진 요구
④ 식품의 안전과 환경개선
⑤ 동식물의 감역·방역실시
⑥ 농업연구·교육지원
⑦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법의 개발과 보급
⑧ 소규모 농가와 자원이 한정된 농가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 제공
⑨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며, 농가에 대해 효과적이고 충분한 소득세익피트낸트 제공

○ 구체적인 경제체연의 핵심은 소득피익피트낸트의 강화임. 98년 이후 주요 작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거액의 긴급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편하여, 즉 ①98년 농업법에 의해 도입되어 2002년에 종료되는 직불제도(AMTA)를 계속 실시할 것, ②소득보완
지지프로그램(SIS: Supplemental Income Support)을 실시할 것, ③융자부족(LoD)과 마케팅을 계속하되, 융자단가(Loan Rate)는 각작물의 가격변화를 기초로 조정할 것, ④모든 정부 지불에 대한 상한을 철폐할 것 등임.

○ 소득보완지지프로그램(SIS)은 소맥, 옥수수, 대두, 수수, 쌀, 면화, 대맥 등에 의한 소득 총액이 과거 과정기간 소득총액에서 일정수준이상 하락한 경우에 생산자에 대해 보완적인 지불을 행하는 것임. 소득하락에 따라 발생되며 점에서 ‘변동환율형’(counter-cyclical)이지만, 개별 작물의 가격과 생산량에서 분리되어 운용되는 점에서 WTO상의 ‘허용대상보조’(green box)에 해당되는 시책임. 직물제도(AMTA)와 같이 과정기간에 식부를 실시한 농가에 대해서 고정된 단수와 면책에 따라 지불됨.

○ 또, 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①경부 보험에서 민간회사에 의한 작물·수입보험으로 이행하고, 정부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 보조를 실시할 것, ②조세특례계정(FARRM: Farm and Fanch Risk Management Accounts)의 설정을 인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음. FARRM 계정은 기간의 제한 없이 세금의 납부유예가 인정되고, 소득 하락시에 활용되기도 하며, 이로 후의 생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음.

1.6. EU 구제역 확산방지대책 강화

○ EU 상실수의위협은 지난 3월 6일, 영국의 가축·축산물 수출금지 연장(3월 27일까지), EU 영내 가축시장 개장금지(2주간) 등 구제역방역대책 강화하여 관련 EU 위험회 계약을 승인했음.

○ 현재까지 발생보고는 영국에 한정되어 있지만 발생이 확대·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음. 더욱이 확산예방 가능성을
대해서도 논의되었지만 영국에서 지금까지 발생·방역상황, 확진자, 비용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현실점에서는 효율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차기 상실수의 위원회는 3월 21로 예정되어 있음.

○ 이번에 송인된 대책가운데 새로운 것은 다음 3가지임. 즉, ① EU 전역에서의 가축시장개장 금지, ② 감수성이 있는 동물(禽類)의 이동금지 하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도축장으로의 직접출하 및 능가간 직접이동은 허용, ③ 영국에서 다른 가맹국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소독 등.

○ 영국에서 3월 8일 현재 구제역 발생확률 상황은 그레이트브리튼에서 106건, 북아일랜드에서 1건으로 총 107건임. 방역을 위해 지금까지 도축된 동물총수는 7만 4천여두이며, 더욱이 도축을 기다리는 두수는 1 만 8천두여 이르고 있음.

○ 주요국가의 현재까지의 구제역대책은 다음과 같음.

① 아일랜드
   ○ 영국과 관계 있는 양 1천두 도축
   ○ 북아일랜드국경근처의 전 가축시장 개회금지
   ○ 북아일랜드에서 수입된 사료·식료품의 검사제재강화
   ○ 수입금지

② 스페인
   ○ 영국에서 수입된 돼지고 540두 도축

③ 프랑스
   ○ 영국에서 수입한 양 및 관련 양 총 5만두 도축
   ○ 영국 프랑스간 기상변화 모니터
4. 벨기에
   ○ 영국에서 수입한 양 2천두 도축
   ○ 양 및 엽소이동 금지
   ○ 영국에서 가축을 수입한 농가 15호 감시

5. 네덜란드
   ○ 영국과 관련 있는 농가의 소, 양, 돼지, 사슴 총 4,300두 도축

6. 독일
   ○ 영국에서 수입한 가축 검사
   ○ 영국 발생농가와 관련 있는 양 2천두 도축

7. 이탈리아
   ○ 영국에서 수입한 양 및 돼지 검사
   ○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EU 및 외국의 수입 전면 금지

1.7. 세계 농산물무역의 최근동향

○ UR 농업협상 타결 전후의 세계 곡물 무역량추이를 보면 아시아를 중
심으로 한 개도국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세계 전체의 수입량은 1986
년의 1억 7,000만 톤에서 88년에는 2억 1,000만 톤으로 증가함.

○ 90년 이후에도 개도국 수입량은 증가경향이지만, 구소련이나 동구에
서는 국내경제 혼란으로 수반되는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 것과 97년에
는 아시아계국에서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상승추세에 있던 수요량이
감소한 것 등으로 세계 전체의 수입량은 거의 정체 상태로 추정됨.

○ 수출에서는 EU의 시장점유율은 13.7%에서 9.7%로 하락, 수출경쟁력을
강화한 미국에서는 97년은 주요 곡물 수출처인 아시아지역으로의 수
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계 곡물수출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1986~88년 평균과 96~98년 평균을 비교하면, 42.5%에서 39.3%로 그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곡물무역의 요람을 반영되고 있음. 1985년과 97년에 지역간의 요람을 비교하면, 북미, EC, 오세아니아에서 구조리정제국이나 동구체제국으로의 수출이 격감하는 동시에, 미국과 호주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 농산물의 무역수지 동향을 보면,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의 수출지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등의 수입지역의 양극분화가 치명하기는 동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 남미를 제외한 개도국의 농산물 무역수지의 악화가 현저하고 있음.

○ 한편, 아시아와 일본에서는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여 증가하였기 때문에 1986~98년 사이에 수입의존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88년이 11억 달러의 흑자였지만, 98년에는 55억 달러로 증가했음. EU에서는 수입의존성이 낮고, 해마다 수출액과 수입액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짐.

○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증가나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소비자요구의 고도화·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국내생산이 수요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수출국에서 수입으로 보충하는 경향이 정착되고 있음.

○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에서는 1인당 곡물수요량은 선진국과 비교해 절반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향후도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진수출국으로의 의존경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2.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2.1.1. 전체 곡물

○ 2000/01년도 세계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이 1999/00년도보다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7억 3,541만톤이 될 전망임. 2000/01년도 총곡물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9억 4,390만톤과 생산량을 합친 28억 5,514만톤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약 3,600만톤 이상 감소한 수준임.

○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4% 늘어난 17억 7,647만톤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대비 4.3% 줄어든 2억 7,391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7%가 될 전망임.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3,990만 tấn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0.1% 감소한 3억 900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재고율도 17.5%로 내려갈 전망임. 이는 1999/00년도 재고율보다 약 2.0% 포인트 낮은 수준임.

2.1.2. 쌀

○ 2000/01년도 쌀 생산량은 1999/00년도보다 700만톤 정도 줄어들어 4억톤 아래로 내려갈 전망임.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610만톤, 중국도 4.3% 감소한 1억 3,300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3) 이 자료는 농업생산계리연구본 부연구위원(이주성@korea.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 2000/01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7% 늘어난 4억 354만톤으로 전년보다 288만톤 경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000/01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377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망됨. 특히 베트남의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 2000/01년도에는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이 늘어난 전망이어서 세계 쌀 가격제고량은 전년대비 6.6%가 줄어든 6,15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재고량이 풍부로 줄어들 전망임. 이에 따라 재고율도 15.3%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임.

2.1.3. 소맥

○ 세계 밀 생산량은 1999/00년 5억 8,751만톤에서 2000/01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5억 8,06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유럽과 러시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임.

○ 2000/01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1999/00년 5억 9,839만톤보다 약간 줄어든 5억 9,341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8/9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억 2,258만톤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00년 1억 3,519만톤으로 늘어났으나, 2000/01년에 다시 전년보다 6.1% 줄어든 1억 2,693만톤으로 될 전망이며,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1.9%가 될 전망임.

○ 2000/01년에는 소비량은 큰 변동 없으나 생산량 감소로 가파른재고량이 전년대비 10.1% 감소한 1억 1,361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과 미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가파른재고율도 전년의 21.1%에서 19.1%로 떨어질 전망임.
2.1.4. 옥수수

○ 2000/01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8,456만톤으로 전년보다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는 미국, 유럽 등의 생산량은 약간 증가하나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임.

○ 2000/01년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6억 344만톤으로 전망됨. 그리고 옥수수의 교역량 역시 전년보다 7.6% 줄어든 7,904만톤으로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5%로 낮아질 전망임. 전체 교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에 이를 전망임.

○ 2000/01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1억 584만톤으로 전망됨. 미국, 아르헨티나, 유럽의 기말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중국의 기말재고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3.2% 포인트 낮은 17.5%가 될 전망임.

2.1.5. 대두

○ 세계 대두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2000/01년에는 사상 최대인 1억 7,028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5.4% 늘어난 1억 6,908만톤으로 전망됨.

○ 2000/01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4,858만톤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8.8%에 이를 전망이며, 전체 수출량에서 미국이 54.7%, 브라질이 25.0%, 아르헨티나가 11.1%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0.8%에 이를 전망임.

○ 2000/01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798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688만톤과 비교하여 98만톤 정도 늘어나지만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16.7%에서 16.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됨. 이는 소비량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임.

2.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2.1. 쌀


○ 태국산 경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 달러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1년 1/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보다 23.5% 하락한 톤당 211.98 달러 수준임.

2.2.2. 소맥


○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펀치였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음.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1년 1/4분
기에는 117.03 달러로 이는 전년 동분기보다 1.7% 하락한 수준임.

2.2.3. 옥수수

○ 1996년 5월 평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외가격은 연속된 중점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평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음.

○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평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1년 1/4분기에는 평당 93.64 달러 수준을 나타냈. 이는 전년 동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2.2.4. 대두


국제 국물가격 동향

<table>
<thead>
<tr>
<th></th>
<th>1/4분기</th>
<th>연간</th>
<th>1/4분기</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전년동기대비 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쌀 (중립종)</td>
<td>457.45</td>
<td>431.70</td>
<td>319.58</td>
<td>340.08</td>
<td>325.56</td>
<td>292.11</td>
<td>△30.1</td>
</tr>
<tr>
<td>쌀 (강립종)</td>
<td>245.80</td>
<td>211.68</td>
<td>187.34</td>
<td>190.53</td>
<td>190.53</td>
<td>183.00</td>
<td>△23.5</td>
</tr>
<tr>
<td>소맥</td>
<td>115.10</td>
<td>111.28</td>
<td>117.03</td>
<td>113.89</td>
<td>116.83</td>
<td>120.37</td>
<td>1.7</td>
</tr>
<tr>
<td>옥수수</td>
<td>93.52</td>
<td>91.54</td>
<td>93.64</td>
<td>95.00</td>
<td>93.03</td>
<td>92.98</td>
<td>0.1</td>
</tr>
<tr>
<td>대두</td>
<td>196.44</td>
<td>193.98</td>
<td>180.18</td>
<td>186.43</td>
<td>178.73</td>
<td>175.38</td>
<td>△8.3</td>
</tr>
</tbody>
</table>

단위: 달러/톤, FOB

주: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품, 강립종은 텍시 1등품 가격임. 소맥은
자료: 한국경제신문, UNICOM.
이후부터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 달러까지 하락하다가 12월 196.98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01년 1/4분기에는 180.18 달러로 전년 동분기보다 8.3% 낮은 수준에 있음.
Ⅲ. 국내경제 동향4)

1. 거시지표


○ 그러나 경기하락이 장기화될 예정인지는 없을 전망임. 2000년 하반기의 불황은 금융경색에 따른 경제의 폐도이탈이 그 원인이 있었음.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있어 2000년 하반기보다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 산업생산은 3/4분기의 1999년 대비 19.8%증가에서 4/4분기어는 7.6% 증가하는 하였고 특히 12월에는 4.7%에 머물러 산업현장의 경기 낙각이 심각한 수준임. 다만 2월이후 생산, 출하 등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어 추가적인 경기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다 주요 수출품목이 반도체, 컴퓨터 등 컴퓨터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의 IT산업정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인 일본의 대미 엔화환율도 동반상승하고 있어 해외시장의 한일간 가격경쟁이 격화될 전망임.

4) 이 자료는 총력관측센터 김정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훈 연구원 (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산업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3/4분기</td>
<td>4/4분기</td>
<td>11월</td>
<td>12월</td>
<td>1월</td>
<td>2월</td>
</tr>
<tr>
<td>GDP</td>
<td>8.8%</td>
<td>9.2</td>
<td>4.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생산</td>
<td>16.8</td>
<td>19.8</td>
<td>7.5</td>
<td>6.5</td>
<td>4.7</td>
<td>0.1</td>
<td>8.6</td>
</tr>
<tr>
<td>출하</td>
<td>16.6</td>
<td>19.8</td>
<td>5.7</td>
<td>3.8</td>
<td>3.9</td>
<td>△2.0</td>
<td>4.4</td>
</tr>
<tr>
<td>(수출)</td>
<td>21.7</td>
<td>32.5</td>
<td>8.6</td>
<td>4.7</td>
<td>8.6</td>
<td>5.5</td>
<td>9.6</td>
</tr>
<tr>
<td>(내수)</td>
<td>12.7</td>
<td>10.3</td>
<td>3.3</td>
<td>3.0</td>
<td>0.3</td>
<td>△7.8</td>
<td>0.3</td>
</tr>
<tr>
<td>재고</td>
<td>16.2</td>
<td>13.4</td>
<td>16.2</td>
<td>17.9</td>
<td>16.2</td>
<td>16.3</td>
<td>15.1</td>
</tr>
<tr>
<td>(전기/월비)</td>
<td>-</td>
<td>5.3</td>
<td>7.4</td>
<td>0.6</td>
<td>2.2</td>
<td>0.9</td>
<td>△0.7</td>
</tr>
<tr>
<td>평균가동률</td>
<td>78.3</td>
<td>79.9</td>
<td>75.0</td>
<td>75.2</td>
<td>73.9</td>
<td>73.9</td>
<td>74.9</td>
</tr>
</tbody>
</table>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농림어업은 고유가에 따르는 양적 생산 부진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4분기 들어 2% 상승으로 전환되었음.

경제활성별 경제성장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table>
<thead>
<tr>
<th></th>
<th>1999년</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연간</td>
<td>2/4분기</td>
<td>3/4분기</td>
<td>4/4분기</td>
<td></td>
<td></td>
</tr>
<tr>
<td>전 산업</td>
<td>11.0</td>
<td>9.2</td>
<td>9.5</td>
<td>9.0</td>
<td>4.8</td>
<td></td>
<td></td>
</tr>
<tr>
<td>농림어업</td>
<td>4.7</td>
<td>0.1</td>
<td>△1.7</td>
<td>△2.4</td>
<td>2.0</td>
<td></td>
<td></td>
</tr>
<tr>
<td>제조업</td>
<td>21.8</td>
<td>15.4</td>
<td>16.8</td>
<td>18.1</td>
<td>6.5</td>
<td></td>
<td></td>
</tr>
<tr>
<td>서비스업</td>
<td>11.7</td>
<td>9.0</td>
<td>10.2</td>
<td>8.3</td>
<td>5.5</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재정경제부

○ 각종 통계지표는 경기하락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경기하락에 따른 자금수요감소와 함께 외국인 자금유입도 줄어 들고 있음. 1월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설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증가에 따른임.
동화지표(평잔기준)

(단위: 전년동월대비, %)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 연간</th>
<th>2000년 12월</th>
<th>2001년 1월</th>
<th>2001년 2월</th>
</tr>
</thead>
<tbody>
<tr>
<td>M1</td>
<td>16.5</td>
<td>11.8</td>
<td>13.2</td>
<td>10.0</td>
</tr>
<tr>
<td>M2</td>
<td>25.5</td>
<td>24.5</td>
<td>26.1</td>
<td>20.7</td>
</tr>
<tr>
<td>MCT</td>
<td>14.4</td>
<td>12.0</td>
<td>-</td>
<td>-</td>
</tr>
<tr>
<td>본원통화율</td>
<td>20.0</td>
<td>11.3</td>
<td>15.5</td>
<td>8.6</td>
</tr>
</tbody>
</table>

MCT = M2 + CD + 금전신용
자료: 한국은행.
주: 증감율

○ 시중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락추세는 통화되고 있음.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시중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국고채에 집중되었고 회사채는 발행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문제.

○ 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회사채 투자 신용도에 따른 금리격차는 1.4%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음. 양도성여금증서(CD) 수익률은 3월 현재 5.7%, 회사채유동수익률은 7.2% 수준임.

○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것이 보편적임.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간 격차가 콤 수록 경제에 대한 자금수요 측, 경기환경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장단기 금리격차 축소는 경제주체들이 금년 경제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 설비자금 수요가 낮은 수준임을 나타냄.

○ 기간평균 대미 달리환율은 200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4월 11일 현재 1.325원 수준임.
시중지급사정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th>
<th></th>
<th>2001년</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12월</td>
<td>1월</td>
<td>2월</td>
</tr>
<tr>
<td>콜 금리</td>
<td>5.1</td>
<td>5.3</td>
<td>5.3</td>
<td>5.1</td>
</tr>
<tr>
<td>CD융통수익률</td>
<td>7.1</td>
<td>6.9</td>
<td>6.4</td>
<td>5.7</td>
</tr>
<tr>
<td>회사채융통수익률</td>
<td>9.3</td>
<td>8.1</td>
<td>7.8</td>
<td>6.8</td>
</tr>
<tr>
<td></td>
<td></td>
<td></td>
<td>3월</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5.0</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5.7</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7.2</td>
</tr>
</tbody>
</table>

자료: 재정경제부

○ 급속한 환율상승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장개입에 나서 하락세가 임시적으로 반전되었음. 그러나 국내 경기여 취한 불안과 총권시장 허체여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대미환율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분기별 달러 환율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th>
<th></th>
<th>2001년</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4/4분기</td>
<td>12월</td>
<td>1/4분기</td>
</tr>
<tr>
<td>대미환율</td>
<td>1130.6</td>
<td>1164.3</td>
<td>1214.4</td>
<td>1272.2</td>
</tr>
<tr>
<td>증감율(%)</td>
<td>△5.0</td>
<td>△0.9</td>
<td>6.7</td>
<td>12.9</td>
</tr>
<tr>
<td></td>
<td></td>
<td></td>
<td>1월</td>
<td>2월</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272.3</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252.4</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1288.4</td>
</tr>
</tbody>
</table>

자료: 재정경제부

○ 2001년의 경제성장은 2000년의 8.8%보다 크게 둔화된 4.5% 내외를 기록할 전망임. 물가상승률은 4% 내외, 실업률은 4.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주 수출대상국인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기가 동반 하강하고 있어 경제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2000년보다 성장률은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은 높아
지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기관명</th>
<th>발표 시기</th>
<th>경제성장(%)</th>
<th>소비자물가 상승률(%)</th>
<th>실업률(%)</th>
<th>경상수지흑자(억달러)</th>
</tr>
</thead>
<tbody>
<tr>
<td>국내 기관</td>
<td>LG경제연구원</td>
<td>4월</td>
<td>8.8 8.0</td>
<td>2.2 3.9</td>
<td>4.0 4.5</td>
<td>110 169</td>
</tr>
<tr>
<td></td>
<td>현대경제연구원</td>
<td>2월</td>
<td>9.5 4.8</td>
<td>2.3 3.5</td>
<td>4.0 4.4</td>
<td>116 95</td>
</tr>
<tr>
<td></td>
<td>한국개발연구원</td>
<td>4월</td>
<td>8.8 4.3</td>
<td>2.3 4.2</td>
<td>4.0 -</td>
<td>110 134</td>
</tr>
<tr>
<td>국외 기관</td>
<td>WEFA</td>
<td>4월</td>
<td>9.1 6.1</td>
<td>1.6 3.3</td>
<td>- -</td>
<td>196 231</td>
</tr>
</tbody>
</table>

2. 물 가

○ 생산자물가는 2000년의 11월을 저점으로 상승속도가 빨라져 1/4분기에는 2.5% 상승하였음.

○ 서비스업이 3.2% 상승하였고 공산품은 11월의 1.4%를 저점으로 물가 상승속도가 빨라졌으며, 농림수산품은 2000년 4/4분기에 이어 2001년 1/4분기에도 하락추세가 이어져 전년동기 대비 4.1% 하락하였음.

○ 그러나 전기대비로는 농림수산품의 경우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전력 수도가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높아짐으로써 생산자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자물가 상승은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2001년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음. 더욱이 대미 고통상승때문에 수입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임.
2001년 1/4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0년 4/4분기의 2.8%에 비해 상승속도가 빨라졌음. 농축수산물은 2000년 4/4분기의 0.8% 하락에서 반전하여 2001년 1/4분기에는 0.2% 상승하였음. 공업제품은 지난해 4/4분기의 2% 상승에 이어 1/4분기에도 3.7% 상승하였음.

**품목별 생산자 물가**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 연간</th>
<th>4/4분기</th>
<th>12월</th>
<th>1/4분기</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r>
</thead>
<tbody>
<tr>
<td>농림수산품</td>
<td>△2.5</td>
<td>△5.2</td>
<td>△7.3</td>
<td>△4.1</td>
<td>△7.2</td>
<td>△5.6</td>
<td>0.4</td>
</tr>
<tr>
<td>광산물</td>
<td>-</td>
<td>(△4.3)</td>
<td>(△0.8)</td>
<td>(△4.6)</td>
<td>(△3.4)</td>
<td>(△1.0)</td>
<td>(△5.1)</td>
</tr>
<tr>
<td>공산품</td>
<td>2.2</td>
<td>2.1</td>
<td>0.4</td>
<td>△0.7</td>
<td>△0.4</td>
<td>△0.9</td>
<td>△1.0</td>
</tr>
<tr>
<td>전력수도가스</td>
<td>-</td>
<td>(△1.1)</td>
<td>(△0.9)</td>
<td>(△1.8)</td>
<td>(△0.6)</td>
<td>(△0.5)</td>
<td>(△0.3)</td>
</tr>
<tr>
<td>서비스</td>
<td>2.4</td>
<td>1.8</td>
<td>2.2</td>
<td>2.5</td>
<td>2.5</td>
<td>2.6</td>
<td>2.5</td>
</tr>
<tr>
<td>원재료</td>
<td>8.5</td>
<td>8.2</td>
<td>7.9</td>
<td>8.5</td>
<td>8.5</td>
<td>8.5</td>
<td>8.5</td>
</tr>
<tr>
<td>중간재</td>
<td>1.5</td>
<td>1.7</td>
<td>2.0</td>
<td>3.2</td>
<td>3.0</td>
<td>3.3</td>
<td>3.3</td>
</tr>
<tr>
<td>최종재</td>
<td>-</td>
<td>(0.2)</td>
<td>(0.5)</td>
<td>(1.2)</td>
<td>(0.8)</td>
<td>(0.0)</td>
<td>(0.2)</td>
</tr>
<tr>
<td>총지수</td>
<td>22.7</td>
<td>17.3</td>
<td>21.9</td>
<td>-</td>
<td>6.8</td>
<td>6.0</td>
<td>-</td>
</tr>
</tbody>
</table>
| 주: ( )는 전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 롱목별 생산자율가 (전년동기대비)

![롯목별 생산자율가 (전년동기대비)](image)

## 롱목별 소비자율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 연간</th>
<th>4/4분기</th>
<th>12월</th>
<th>1/4분기</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2001년 연간</th>
</tr>
</thead>
<tbody>
<tr>
<td>상품</td>
<td>1.7 (0.4)</td>
<td>1.2 (0.5)</td>
<td>1.8 (1.2)</td>
<td>2.6 (1.0)</td>
<td>2.5 (0.2)</td>
<td>2.4 (0.2)</td>
<td>3.0 (0.2)</td>
<td></td>
</tr>
<tr>
<td>동축수산업</td>
<td>2.0 (2.3)</td>
<td>0.8 (0.7)</td>
<td>1.2 (2.1)</td>
<td>0.2 (2.8)</td>
<td>0.2 (0.1)</td>
<td>1.1 (1.5)</td>
<td>1.8 (1.5)</td>
<td></td>
</tr>
<tr>
<td>공업제품</td>
<td>1.6 (1.5)</td>
<td>2.0 (0.9)</td>
<td>2.9 (1.0)</td>
<td>3.7 (0.4)</td>
<td>3.6 (0.2)</td>
<td>3.9 (0.2)</td>
<td>3.4 (0.3)</td>
<td></td>
</tr>
<tr>
<td>서비스</td>
<td>2.9 (1.2)</td>
<td>4.6 (0.3)</td>
<td>4.8 (2.1)</td>
<td>6.0 (1.1)</td>
<td>5.9 (0.4)</td>
<td>6.1 (0.4)</td>
<td>5.9 (1.0)</td>
<td></td>
</tr>
<tr>
<td>집세</td>
<td>0.5 (0.6)</td>
<td>1.7 (0.3)</td>
<td>2.1 (1.0)</td>
<td>2.7 (0.5)</td>
<td>2.6 (0.1)</td>
<td>2.6 (0.1)</td>
<td>2.8 (0.4)</td>
<td></td>
</tr>
<tr>
<td>공공서비스</td>
<td>7.1 (3.1)</td>
<td>10.4 (0.3)</td>
<td>10.5 (4.0)</td>
<td>13.3 (3.0)</td>
<td>13.8 (0.2)</td>
<td>13.5 (0.2)</td>
<td>13.0 (0.3)</td>
<td></td>
</tr>
<tr>
<td>개인서비스</td>
<td>2.0 (0.2)</td>
<td>2.5 (0.5)</td>
<td>2.6 (1.2)</td>
<td>2.8 (0.2)</td>
<td>2.6 (0.6)</td>
<td>2.9 (1.4)</td>
<td>3.0 (1.4)</td>
<td></td>
</tr>
<tr>
<td>총지수</td>
<td>2.3 (0.7)</td>
<td>2.8 (0.2)</td>
<td>3.2 (1.6)</td>
<td>4.2 (1.1)</td>
<td>4.2 (0.2)</td>
<td>4.2 (0.2)</td>
<td>4.4 (0.6)</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주: ( )는 전기(월) 대비
○ 소비자물가 상승은 서비스(6%)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중 공공서비스가 13.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공공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물가상승이 크게 작용하였음. 특히 투약 및 주사료는 76.9% 상승하였고 건강료는 43.3%, 본관리는 31.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물가

○ 수출물가는 2000년 12월부터 상승하여 2월 현재 전년동월 대비 6.1% 상승하였음. 수출물가가 상승한 것은 주로 국제유가 인상이 반영된 석유화학제품과 원자재, 자본재의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전월대비 수출물가는 그간의 상승세에서 2월 현재 하락세로 전환되어 2% 하락하였음. 전월대비 수출물가가 하락한 것은 반도체, 전자제품 등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였고 원화환율도 2월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임.
○ 능력수출품의 수출증가는 전년동월 대비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전월대비로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공단계별로는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전년동월 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전월대비로 볼 경우 여전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품목별 수출물가 동향**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th>
<th>2001년</th>
<th>단위: 전년동기대비, %</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 4/4분기 12월 1월 2월</td>
<td>연간 4/4분기 12월 1월 2월</td>
<td></td>
</tr>
<tr>
<td>농림수산물</td>
<td>△6.8 (2.6) (3.6) (1.3) (2.1)</td>
<td>△15.4 (1.3) (8.6) (3.6)</td>
<td></td>
</tr>
<tr>
<td>공 산 물</td>
<td>△0.9 (2.1) (3.8) (4.5) (△2.0)</td>
<td>△14.4 (4.4) (9.2) (6.3)</td>
<td></td>
</tr>
<tr>
<td>원 자 재</td>
<td>4.2 (0.8) (2.1) (4.0) (△2.0)</td>
<td>△0.4 (4.3) (8.0) (3.8)</td>
<td></td>
</tr>
<tr>
<td>자 본 재</td>
<td>△7.3 (3.3) (5.1) (4.2) (△2.4)</td>
<td>△3.9 (2.7) (8.1) (6.6)</td>
<td></td>
</tr>
<tr>
<td>소 비 재</td>
<td>△6.0 (3.9) (6.0) (5.2) (△1.8)</td>
<td>△2.8 (4.5) (10.6) (9.4)</td>
<td></td>
</tr>
<tr>
<td>총지수</td>
<td>△1.0 (2.1) (3.9) (4.5) (△2.0)</td>
<td>△1.6 (4.2) (8.9) (6.1)</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은행
주: ( )는 전기대비

○ 수입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8.2% 상승하여 경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음. 수입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 전월대비로는 0.3%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2월의 환율이 일시적으로 1월보다 하락한 데다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세계경기 하락으로 낮은 수
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임.

○ 특히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3~6개월 후 물가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품목별 수입물가 동향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th>
<th></th>
<th>2001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4/4분기</td>
<td>12월</td>
</tr>
<tr>
<td>농림수산품</td>
<td>1.7</td>
<td>2.4</td>
<td>9.1</td>
</tr>
<tr>
<td>공산품</td>
<td>2.2</td>
<td>(6.1)</td>
<td>(4.5)</td>
</tr>
<tr>
<td>원자재</td>
<td>11.1</td>
<td>5.5</td>
<td>6.2</td>
</tr>
<tr>
<td>자본재</td>
<td>△4.9</td>
<td>△4.0</td>
<td>1.2</td>
</tr>
<tr>
<td>소비재</td>
<td>1.0</td>
<td>3.4</td>
<td>5.5</td>
</tr>
<tr>
<td>총지수</td>
<td>7.6</td>
<td>3.8</td>
<td>5.3</td>
</tr>
</tbody>
</table>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 ( )는 전기대비

3. 소비

○ 민간소비는 200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도소매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민간소비의 가장 큰 부분인 내구재출처가 각자리수로 감소함으로써 향후 경기결점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다만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가 1월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
타나 소비심리가 더 이상 악화하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두 지표가 여전히 100이하로 소비가 활성화되는 않으며 현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겨냥.

소비 동향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4/4 분기</td>
<td>11월</td>
<td>12월</td>
</tr>
<tr>
<td>도소매 판매</td>
<td>9.8</td>
<td>3.9</td>
<td>4.0</td>
<td>2.3</td>
</tr>
<tr>
<td>내수용 소비지출 (대부)</td>
<td>6.4</td>
<td>Δ1.7</td>
<td>1.0</td>
<td>Δ6.2</td>
</tr>
<tr>
<td>내수용 소비지출 (내구재)</td>
<td>5.1</td>
<td>Δ1.0</td>
<td>Δ7.2</td>
<td>Δ14.7</td>
</tr>
<tr>
<td>내수용 소비지출 (비내구재)</td>
<td>7.2</td>
<td>3.6</td>
<td>6.3</td>
<td>Δ1.6</td>
</tr>
</tbody>
</table>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지표: 재정경제부, 통계청
주: ( )는 전기(월)대비

○ 2000년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7.3% 증가하였고 소비지출은 9.6% 증가하였음 4/4분기에는 소득과 소비지출이 각각 4.2%, 4.7% 증가하였음 경기둔화를 반영하여 석유품 중 외식비의 가중이 3/4분기의 25% 증가에서 4/4분기에는 4.8% 증가로 크게 둔화되었고 고양오락 지출도 21.1%에서 2.3%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음.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table>
<thead>
<tr>
<th></th>
<th>1999년</th>
<th>2000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연간</td>
<td>연간</td>
</tr>
<tr>
<td>소득</td>
<td>4.3</td>
<td>7.3</td>
</tr>
<tr>
<td>소비지출</td>
<td>13.5</td>
<td>9.6</td>
</tr>
<tr>
<td>식료품</td>
<td>14.1</td>
<td>8.7</td>
</tr>
<tr>
<td>주거</td>
<td>5.1</td>
<td>9.3</td>
</tr>
</tbody>
</table>

단위: 전년등기대비, %

지표: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4. 고용

- 2001년 3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21,763천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59.8%임. 격절조정 실업률은 4.2%, 실업자는 1,035천명임. 실업률을 원계열로 살펴보면 4.8%로 2월에 5.0%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하였음.

- 농림어업 취업자는 1,967천명으로 전월대비 19.6% 증가하였고 제조업 취업자는 4,181천명으로 전월대비 0.4% 증가하였음. 건설업 취업자는 격절적 요인으로 2월의 1,668천명보다 7.4% 증가한 1,467천명을 기록.

- 격절적으로 2월이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 이유는 농업과 건설업의 노동력 수요가 적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임.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경제활동인구</td>
<td>21,950</td>
<td>21,750</td>
<td>21,267</td>
<td>21,265</td>
<td>21,763</td>
<td>2.3</td>
</tr>
<tr>
<td>(경제활동참가율)</td>
<td>60.7</td>
<td>59.9</td>
<td>58.5</td>
<td>58.5</td>
<td>59.8</td>
<td>1.3</td>
</tr>
<tr>
<td>취업자</td>
<td>21,061</td>
<td>20,857</td>
<td>20,266</td>
<td>20,196</td>
<td>20,728</td>
<td>2.6</td>
</tr>
<tr>
<td>노동일여업</td>
<td>2,288</td>
<td>1,816</td>
<td>1,613</td>
<td>1,644</td>
<td>1,967</td>
<td>19.6</td>
</tr>
<tr>
<td>광공업</td>
<td>4,261</td>
<td>4,293</td>
<td>4,241</td>
<td>4,183</td>
<td>4,199</td>
<td>0.4</td>
</tr>
<tr>
<td>(재조업)</td>
<td>4,243</td>
<td>4,274</td>
<td>4,223</td>
<td>4,163</td>
<td>4,181</td>
<td>0.4</td>
</tr>
<tr>
<td>사회간접자본</td>
<td>14,511</td>
<td>14,749</td>
<td>14,432</td>
<td>14,370</td>
<td>14,561</td>
<td>1.3</td>
</tr>
<tr>
<td>(건설업)</td>
<td>1,581</td>
<td>1,624</td>
<td>1,366</td>
<td>1,366</td>
<td>1,467</td>
<td>7.4</td>
</tr>
<tr>
<td>실업자</td>
<td>889</td>
<td>893</td>
<td>982</td>
<td>1,069</td>
<td>1,035</td>
<td>-3.2</td>
</tr>
<tr>
<td>실업률(계절조정)</td>
<td>-</td>
<td>4.0</td>
<td>4.1</td>
<td>4.2</td>
<td>4.2</td>
<td>0.0</td>
</tr>
</tbody>
</table>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IV.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 2001년 2월의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125으로 전년동월 대비 3.2% 악화되었고 전월대비로는 0.9% 개선되었음.

○ 판매가격이 악화된 것은 경기부진에 따라 기호식품인 과실소비가 감소하였고 구제역과 괴우병에 따른 쇠퇴기 및 패지길기 소비감소에 의해 채소류의 소비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부류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로 판매가격지수가 상승한 품목보다 하락한 품목이 많아 두류가 12.8%, 서류가 31.4%, 과실이 27.2%, 화훼가 25.5% 하락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상승한 품목이 많은데 화훼가 총업시즌을 맞아 43.3% 상승하였고 과실이 5.1% 상승하였음. 그 외 품목은 상승률이 1~1.5% 정도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과실류의 판매가격이 낮았던 것은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감소와 함께 사과, 배의 저장공량이 많았기 때문임. 채소류는 2000년 1/4분기의 배추, 무 등의 가격이 평년보다 이례적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금년의 채소류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채성문 연구원(alpha@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농가관매가격지수의 변화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총 지수</td>
<td>1,000.0</td>
<td>116.2</td>
<td>106.0</td>
<td>105.9</td>
<td>111.5</td>
<td>112.5</td>
<td>△3.2</td>
<td>0.9</td>
</tr>
<tr>
<td>곡물</td>
<td>323.3</td>
<td>134.5</td>
<td>135.1</td>
<td>134.2</td>
<td>135.9</td>
<td>137.4</td>
<td>2.2</td>
<td>1.1</td>
</tr>
<tr>
<td>채소</td>
<td>288.7</td>
<td>135.6</td>
<td>136.8</td>
<td>136.0</td>
<td>138.5</td>
<td>140.4</td>
<td>3.5</td>
<td>1.4</td>
</tr>
<tr>
<td>액류</td>
<td>136.0</td>
<td>110.8</td>
<td>115.2</td>
<td>115.2</td>
<td>115.2</td>
<td>115.2</td>
<td>4.0</td>
<td>0.0</td>
</tr>
<tr>
<td>잡곡</td>
<td>3.7</td>
<td>116.9</td>
<td>125.3</td>
<td>125.3</td>
<td>125.2</td>
<td>125.2</td>
<td>7.1</td>
<td>0.0</td>
</tr>
<tr>
<td>두류</td>
<td>7.8</td>
<td>143.6</td>
<td>131.5</td>
<td>130.5</td>
<td>128.3</td>
<td>125.2</td>
<td>△12.3</td>
<td>△2.4</td>
</tr>
<tr>
<td>서류</td>
<td>9.5</td>
<td>135.5</td>
<td>58.1</td>
<td>51.2</td>
<td>95.7</td>
<td>92.9</td>
<td>△31.4</td>
<td>△2.9</td>
</tr>
<tr>
<td>정과물</td>
<td>296.6</td>
<td>106.0</td>
<td>80.9</td>
<td>78.1</td>
<td>93.7</td>
<td>94.8</td>
<td>△10.6</td>
<td>1.2</td>
</tr>
<tr>
<td>채소</td>
<td>208.5</td>
<td>113.6</td>
<td>84.9</td>
<td>84.6</td>
<td>107.5</td>
<td>107.8</td>
<td>△5.1</td>
<td>0.3</td>
</tr>
<tr>
<td>과실</td>
<td>88.1</td>
<td>88.0</td>
<td>71.6</td>
<td>62.6</td>
<td>61.0</td>
<td>64.1</td>
<td>△27.2</td>
<td>5.1</td>
</tr>
<tr>
<td>축산물</td>
<td>322.3</td>
<td>106.8</td>
<td>99.9</td>
<td>102.9</td>
<td>103.6</td>
<td>103.7</td>
<td>△2.9</td>
<td>0.1</td>
</tr>
<tr>
<td>가축</td>
<td>294.7</td>
<td>106.0</td>
<td>98.0</td>
<td>101.2</td>
<td>101.7</td>
<td>102.0</td>
<td>△3.8</td>
<td>0.3</td>
</tr>
<tr>
<td>유한</td>
<td>276</td>
<td>115.2</td>
<td>120.6</td>
<td>121.0</td>
<td>123.8</td>
<td>122.1</td>
<td>6.0</td>
<td>△1.4</td>
</tr>
<tr>
<td>기타농산물</td>
<td>578</td>
<td>119.2</td>
<td>105.5</td>
<td>107.3</td>
<td>110.9</td>
<td>112.5</td>
<td>△5.6</td>
<td>1.4</td>
</tr>
<tr>
<td>특용작물</td>
<td>488</td>
<td>108.6</td>
<td>106.0</td>
<td>106.8</td>
<td>109.7</td>
<td>105.4</td>
<td>△2.9</td>
<td>△3.9</td>
</tr>
<tr>
<td>화훼</td>
<td>6.7</td>
<td>200.8</td>
<td>84.5</td>
<td>93.9</td>
<td>104.4</td>
<td>149.6</td>
<td>△25.5</td>
<td>43.3</td>
</tr>
<tr>
<td>부산물</td>
<td>2.3</td>
<td>106.3</td>
<td>155.8</td>
<td>155.8</td>
<td>155.8</td>
<td>46.6</td>
<td>0.0</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동양중화 조사부

○ 2001년 2월의 농가관매 가격지수는 133.6으로 전년동월 대비 6.5%, 전월 대비 1.3% 상승하였음. 비록별로는 가계용품이 전년동월 대비 7.7%,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농업용품은 각각 5.1%, 2.7% 상승하였음. 임료금은 각각 5.8% 상승, 0.3% 하락하였음.

○ 가계용품 중 크게 오른 비목은 보건의료이며 전년동월 대비 30.5% 상승하였음. 이는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른 때문임. 농업용품 중에서는 영농광업비가 전년동월 대비 15.9% 상승하였는데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유류가격 및 전기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총 지수</td>
<td>1,000.0</td>
<td>125.4</td>
<td>130.3</td>
<td>129.7</td>
<td>131.9</td>
<td>133.6</td>
<td>6.5</td>
<td>1.3</td>
</tr>
<tr>
<td>가계용품</td>
<td>524.9</td>
<td>122.9</td>
<td>128.7</td>
<td>128.3</td>
<td>131.8</td>
<td>132.4</td>
<td>7.7</td>
<td>0.5</td>
</tr>
<tr>
<td>식료품</td>
<td>97.6</td>
<td>124.2</td>
<td>120.5</td>
<td>119.8</td>
<td>121.7</td>
<td>121.8</td>
<td>△1.9</td>
<td>0.1</td>
</tr>
<tr>
<td>피복류</td>
<td>39.1</td>
<td>115.7</td>
<td>118.4</td>
<td>118.5</td>
<td>118.5</td>
<td>118.5</td>
<td>2.4</td>
<td>0.0</td>
</tr>
<tr>
<td>주거비</td>
<td>48.7</td>
<td>93.5</td>
<td>93.3</td>
<td>94.1</td>
<td>94.4</td>
<td>94.8</td>
<td>1.4</td>
<td>0.4</td>
</tr>
<tr>
<td>가계광열</td>
<td>35.6</td>
<td>169.5</td>
<td>195.2</td>
<td>195.5</td>
<td>192.0</td>
<td>192.1</td>
<td>13.3</td>
<td>0.1</td>
</tr>
<tr>
<td>보건의료</td>
<td>69.8</td>
<td>127.5</td>
<td>148.3</td>
<td>148.4</td>
<td>166.4</td>
<td>166.5</td>
<td>30.5</td>
<td>0.1</td>
</tr>
<tr>
<td>교육교통 wład</td>
<td>121.5</td>
<td>123.9</td>
<td>131.0</td>
<td>131.0</td>
<td>131.3</td>
<td>133.1</td>
<td>7.4</td>
<td>1.4</td>
</tr>
<tr>
<td>교통통신</td>
<td>76.5</td>
<td>118.0</td>
<td>119.5</td>
<td>119.5</td>
<td>120.1</td>
<td>120.1</td>
<td>1.8</td>
<td>0.0</td>
</tr>
<tr>
<td>기타잡비</td>
<td>36.1</td>
<td>118.4</td>
<td>118.3</td>
<td>118.8</td>
<td>124.9</td>
<td>125.1</td>
<td>5.7</td>
<td>0.2</td>
</tr>
<tr>
<td>농업용품</td>
<td>403.7</td>
<td>126.7</td>
<td>130.2</td>
<td>128.3</td>
<td>129.6</td>
<td>133.1</td>
<td>5.1</td>
<td>2.7</td>
</tr>
<tr>
<td>종자류</td>
<td>17.4</td>
<td>100.7</td>
<td>100.7</td>
<td>100.7</td>
<td>100.7</td>
<td>100.7</td>
<td>0.0</td>
<td>0.0</td>
</tr>
<tr>
<td>비료류</td>
<td>24.3</td>
<td>149.5</td>
<td>149.6</td>
<td>149.5</td>
<td>149.6</td>
<td>150.0</td>
<td>0.3</td>
<td>0.3</td>
</tr>
<tr>
<td>농약류</td>
<td>24.6</td>
<td>129.4</td>
<td>129.4</td>
<td>129.4</td>
<td>129.4</td>
<td>132.9</td>
<td>2.7</td>
<td>2.7</td>
</tr>
<tr>
<td>농기구</td>
<td>83.6</td>
<td>153.3</td>
<td>154.1</td>
<td>154.1</td>
<td>154.1</td>
<td>154.1</td>
<td>0.2</td>
<td>0.0</td>
</tr>
<tr>
<td>영농광열</td>
<td>13.9</td>
<td>163.1</td>
<td>198.1</td>
<td>190.7</td>
<td>190.7</td>
<td>189.1</td>
<td>15.9</td>
<td>△0.8</td>
</tr>
<tr>
<td>가축류</td>
<td>129.9</td>
<td>119.3</td>
<td>126.7</td>
<td>123.2</td>
<td>125.7</td>
<td>130.9</td>
<td>9.2</td>
<td>4.1</td>
</tr>
<tr>
<td>사료류</td>
<td>77.7</td>
<td>104.9</td>
<td>104.9</td>
<td>104.9</td>
<td>113.4</td>
<td>113.4</td>
<td>8.1</td>
<td>8.1</td>
</tr>
<tr>
<td>영농자재</td>
<td>32.3</td>
<td>115.4</td>
<td>115.5</td>
<td>115.5</td>
<td>115.6</td>
<td>115.6</td>
<td>0.2</td>
<td>0.0</td>
</tr>
<tr>
<td>농촌임업급금</td>
<td>71.4</td>
<td>136.8</td>
<td>142.0</td>
<td>142.0</td>
<td>145.3</td>
<td>144.8</td>
<td>5.8</td>
<td>△0.3</td>
</tr>
<tr>
<td>농업노임금</td>
<td>31.7</td>
<td>138.4</td>
<td>142.4</td>
<td>142.4</td>
<td>146.7</td>
<td>145.6</td>
<td>5.2</td>
<td>△0.7</td>
</tr>
<tr>
<td>기타임금</td>
<td>2.8</td>
<td>106.9</td>
<td>110.8</td>
<td>110.9</td>
<td>114.8</td>
<td>114.4</td>
<td>7.0</td>
<td>△0.3</td>
</tr>
<tr>
<td>도달료</td>
<td>8.2</td>
<td>173.4</td>
<td>178.6</td>
<td>178.5</td>
<td>189.5</td>
<td>189.5</td>
<td>9.3</td>
<td>0.0</td>
</tr>
<tr>
<td>농기계임차료</td>
<td>28.7</td>
<td>127.5</td>
<td>134.1</td>
<td>134.1</td>
<td>134.1</td>
<td>134.1</td>
<td>5.2</td>
<td>0.0</td>
</tr>
</tbody>
</table>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 2001년 2월의 농가교역조건은 84.2를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9.1% 악화되었고 전월대비로도 0.4% 악화되었음. 교역조건이 1997년수준을 회 복하지 못하는 것은 2000년의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하락의 여파가 남
아있는 데다 광우병에 따른 축산물 소비감소가 종합되어있기 때문임.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동적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전년</td>
<td>동월대비</td>
<td>전월대비</td>
<td></td>
<td></td>
</tr>
<tr>
<td>농가판매가격지수(A)</td>
<td>116.2</td>
<td>106.0</td>
<td>105.9</td>
<td>111.5</td>
<td>112.5</td>
</tr>
<tr>
<td>농가구입가격지수(B)</td>
<td>125.4</td>
<td>130.3</td>
<td>129.7</td>
<td>131.9</td>
<td>133.6</td>
</tr>
<tr>
<td>패리티지수(A/B*100)</td>
<td>92.7</td>
<td>81.4</td>
<td>81.6</td>
<td>84.5</td>
<td>84.2</td>
</tr>
</tbody>
</table>

지표: 농협중앙회 조사부

<table>
<thead>
<tr>
<th>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th>
</tr>
</thead>
</table>

3. 농업인력

○ 2001년 2월의 농림업 취업자는 20,196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5%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2.2% 증가하였음.

○ 2월 현재 농가의 취업자는 1,945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2% 감소하
농가취업자 중에서 농림업 종사자는 1,453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5% 감소하였음.

### 농림업 취업자수동향

<table>
<thead>
<tr>
<th></th>
<th>2000.2</th>
<th>2000.12</th>
<th>2001년</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1월</td>
<td>2월</td>
<td>전년 동월대비</td>
<td>전월 대비</td>
</tr>
<tr>
<td>경제활동인구</td>
<td>21,271</td>
<td>21,750</td>
<td>21,267</td>
<td>21,265</td>
</tr>
<tr>
<td>전산업취업자</td>
<td>20,149</td>
<td>20,857</td>
<td>20,286</td>
<td>20,196</td>
</tr>
<tr>
<td>농림업취업자</td>
<td>1,712</td>
<td>1,733</td>
<td>1,532</td>
<td>1,566</td>
</tr>
<tr>
<td>농가취업자</td>
<td>2,074</td>
<td>2,101</td>
<td>1,909</td>
<td>1,945</td>
</tr>
<tr>
<td>농림업</td>
<td>1,588</td>
<td>1,586</td>
<td>1,419</td>
<td>1,453</td>
</tr>
<tr>
<td>비농림업</td>
<td>483</td>
<td>515</td>
<td>490</td>
<td>492</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 귀농가구수는 2000년 연간 1,154명으로 전년대비 72%가 감소하였음. 12월에는 44명으로 1999년 12월대비 71.1%가 감소하였고 2000년 11월대비로는 39.7%가 감소하였음. 그러나 월별 귀농가구수 자체가 작아 증감률은 큰 의미가 없음.

### 귀농가구 동향

<table>
<thead>
<tr>
<th></th>
<th>1999년</th>
<th>2000년</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연간</td>
<td>152</td>
<td>1,154</td>
<td>41</td>
</tr>
<tr>
<td>귀농가구수</td>
<td>4,118</td>
<td>4,552</td>
<td>△91.1</td>
</tr>
</tbody>
</table>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4. 농산물 수출업6)

4.1. 수출동향

○ 2001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29.2백만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12.3% 감소하였음. 농산물 수출은 184.4백만달러로 10.1% 증가 하였으나 축산물 수출은 되지 구제역의 여파로 70.9%가 감소한 199.9 백만달러에 그쳤음. 임산물 수출은 243백만달러로 1.8% 감소하였음.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0</th>
<th>2000. 1~2월</th>
<th>2001. 1~2월</th>
<th>증감율(%)</th>
</tr>
</thead>
<tbody>
<tr>
<td>농림축산물</td>
<td>487.4</td>
<td>487.4</td>
<td>444.0</td>
<td>△8.9</td>
</tr>
<tr>
<td>농림축산물</td>
<td>1,558.9</td>
<td>261.5</td>
<td>229.2</td>
<td>△12.3</td>
</tr>
<tr>
<td>축산물</td>
<td>1,277.3</td>
<td>236.2</td>
<td>204.4</td>
<td>△13.5</td>
</tr>
<tr>
<td>- 농산물</td>
<td>1,133.5</td>
<td>167.4</td>
<td>184.4</td>
<td>10.1</td>
</tr>
<tr>
<td>- 축산물</td>
<td>143.8</td>
<td>68.7</td>
<td>199.9</td>
<td>△70.9</td>
</tr>
<tr>
<td>임산물</td>
<td>281.6</td>
<td>25.3</td>
<td>249.0</td>
<td>△1.8</td>
</tr>
<tr>
<td>수산물</td>
<td>1,501.2</td>
<td>226.0</td>
<td>214.7</td>
<td>△5.0</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국가별로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136.6% 증가한 19.1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수출도 25%가 증가한 24백만달러를 기록하였음.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9%가 증가한 19.1백만달러를 기록하였음. 반면 일본에 대한 수출은 31.5%가 감소한 92.1백만달러 였음.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00년 4월부터 GSP관계가 철폐된 때문으로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6) 2000년 수출업무료는 잠정치임
○ 2월까지 돼지고기의 수출은 6,789천달러로 88.4%가 감소하였으며 닭고기 수출은 19.2% 증가한 540천달러임.

○ 김치의 수출은 12,631천달러로 6.4% 감소하였으며 홍삼과 백삼의 수출액은 각각 1,350천달러, 739천달러임. 이중 홍삼은 전년동기간 대비 43.4% 감소한 수준이며 백삼은 54.3% 증가한 수준임.

○ 포실류 중 사과와 배의 수출액은 1,327천달러, 1,780천달러로 전년 대비 109.3%, 157.2% 증가하였고 닭의 수출도 5,175천달러로 39.6% 증가하였음. 감귤은 일본에 대한 수출이 2000년 2월 21천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2월은 누계기준 1,025천달러로 급증한 결과 전년동월 대비 1,176.7% 증가하였음.

###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돼지고기</td>
<td>311,777</td>
<td>340,451</td>
<td>74,957</td>
<td>58,306</td>
<td>6,789</td>
<td>△88.4</td>
</tr>
<tr>
<td>닭고기</td>
<td>1,605</td>
<td>2,116</td>
<td>3,025</td>
<td>453</td>
<td>540</td>
<td>19.2</td>
</tr>
<tr>
<td>김치</td>
<td>43,931</td>
<td>79,245</td>
<td>78,847</td>
<td>13,495</td>
<td>12,631</td>
<td>△6.4</td>
</tr>
<tr>
<td>홍삼</td>
<td>31,801</td>
<td>41,419</td>
<td>40,899</td>
<td>3,532</td>
<td>1,350</td>
<td>△43.4</td>
</tr>
<tr>
<td>백삼</td>
<td>7,804</td>
<td>6,091</td>
<td>4,172</td>
<td>479</td>
<td>739</td>
<td>54.3</td>
</tr>
<tr>
<td>사과</td>
<td>3,538</td>
<td>1,674</td>
<td>2,339</td>
<td>634</td>
<td>1,327</td>
<td>109.3</td>
</tr>
<tr>
<td>배</td>
<td>7,731</td>
<td>11,763</td>
<td>17,104</td>
<td>692</td>
<td>1,780</td>
<td>157.2</td>
</tr>
<tr>
<td>감귤</td>
<td>5,045</td>
<td>6,593</td>
<td>4,493</td>
<td>60</td>
<td>1,126</td>
<td>1,776.7</td>
</tr>
<tr>
<td>닭</td>
<td>4,096</td>
<td>7,857</td>
<td>9,531</td>
<td>3,708</td>
<td>5,175</td>
<td>39.6</td>
</tr>
<tr>
<td>토마토</td>
<td>7,592</td>
<td>17,504</td>
<td>22,949</td>
<td>6,325</td>
<td>4,753</td>
<td>△24.9</td>
</tr>
<tr>
<td>오이</td>
<td>5,489</td>
<td>9,233</td>
<td>9,886</td>
<td>2,109</td>
<td>2,266</td>
<td>7.4</td>
</tr>
<tr>
<td>고추</td>
<td>6,890</td>
<td>15,153</td>
<td>29,673</td>
<td>4,244</td>
<td>5,946</td>
<td>40.1</td>
</tr>
<tr>
<td>백합</td>
<td>3,358</td>
<td>3,058</td>
<td>4,395</td>
<td>294</td>
<td>224</td>
<td>△23.8</td>
</tr>
<tr>
<td>장미</td>
<td>3,420</td>
<td>6,471</td>
<td>10,324</td>
<td>1,816</td>
<td>1,516</td>
<td>△16.5</td>
</tr>
<tr>
<td>버섯류</td>
<td>1,771</td>
<td>4,423</td>
<td>5,562</td>
<td>1,208</td>
<td>909</td>
<td>△24.8</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화훼류 중 장미는 1,516천달러로 전년대비 16.5% 감소하였고 백합은 224천달러로 23.8% 감소하였음. 화훼류의 수출액 감소는 2000년의 화훼수출이 1999년에 비해 46.3% 신장된 결과 2000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출이 둔화되었음.

○ 벚꽃류는 909천달러를 수출함으로써 2000년 2월의 1,208천달러와 비교하여 24.3%가 감소하였음.

4.2 수입동향

○ 2001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422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하였음. 농산물 수입은 7.5% 증가하는 반면 축산물 수입은 2000년에 이어 급증하여도 52.6% 증가함으로써 363만달러를 기록하였음. 임산물은 13%가 감소한 227만달러를 수입함.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0년</th>
<th>2001.1~2월</th>
<th>2001.1~2월</th>
<th>증감율(%)</th>
</tr>
</thead>
<tbody>
<tr>
<td>농림축산물</td>
<td>1,207.9,</td>
<td>1,499.5</td>
<td>1,499.5</td>
<td>0.0</td>
</tr>
<tr>
<td>농림축산물</td>
<td>8,527.4</td>
<td>1,273.0</td>
<td>1,422.1</td>
<td>11.7</td>
</tr>
<tr>
<td>농산물</td>
<td>6,783.3</td>
<td>1,012.0</td>
<td>1,195.0</td>
<td>18.1</td>
</tr>
<tr>
<td>- 농산물</td>
<td>5,104.5</td>
<td>773.9</td>
<td>831.6</td>
<td>7.5</td>
</tr>
<tr>
<td>- 축산물</td>
<td>1,678.8</td>
<td>238.2</td>
<td>363.4</td>
<td>52.6</td>
</tr>
<tr>
<td>임산물</td>
<td>1,744.1</td>
<td>261.0</td>
<td>227.1</td>
<td>△13.0</td>
</tr>
<tr>
<td>수산물</td>
<td>1,400.1</td>
<td>226.5</td>
<td>224.8</td>
<td>△0.7</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쇠고기의 수입은 4.8% 감소하여 95,035천달러를 수입하였는데 유럽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육류수입이 감소하였음.
소한 데다 황홀상순으로 최고가 수입의 원가부담이 커졌기 때문임. 되키고가 수입도 최고가 수입과 마찬가지로 32.9% 감소한 28,868천달러를 수입하였음.

○ 최고가와 웃고가의 수요감소는 대체품목인 닭고기의 수입증가를 가졌는데 닭고기의 수입액은 전년동기간 대비 57.5% 증가한 13,468천달러였음.

○ 곡류중 옥수수의 수입은 1.2% 증가하는 더 그쳐 137,919천달러를 수입하였으며 대두는 1.5% 증가한 44,828천달러를 수입하였음. 반면 며의 경우는 전년대비 7.8%가 감소한 78,232천달러를 수입하였음.

### 주요 품목의 수입금액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최고가</td>
<td>268,402</td>
<td>505,247</td>
<td>795,016</td>
<td>99,858</td>
<td>95,055</td>
<td>△4.8</td>
<td></td>
</tr>
<tr>
<td>웃고가</td>
<td>142,523</td>
<td>226,425</td>
<td>259,151</td>
<td>43,040</td>
<td>28,888</td>
<td>△32.9</td>
<td></td>
</tr>
<tr>
<td>닭고기</td>
<td>19,735</td>
<td>45,940</td>
<td>64,717</td>
<td>8,545</td>
<td>13,468</td>
<td>57.5</td>
<td></td>
</tr>
<tr>
<td>옥수수</td>
<td>913,823</td>
<td>881,467</td>
<td>937,747</td>
<td>136,246</td>
<td>137,919</td>
<td>1.2</td>
<td></td>
</tr>
<tr>
<td>밀</td>
<td>663,534</td>
<td>533,892</td>
<td>470,809</td>
<td>84,897</td>
<td>78,292</td>
<td>△7.8</td>
<td></td>
</tr>
<tr>
<td>대두</td>
<td>379,351</td>
<td>312,015</td>
<td>329,963</td>
<td>44,185</td>
<td>44,828</td>
<td>1.5</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0년에 급증했던 열대과일 수입은 올해에는 경기부진 때문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망됨.

○ 열대과일의 수입은 오렌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하였음. 오렌지의 수입은 전년대비 19,740천달러로 9.9% 증가한 반면 린스는 58.4%, 포도는 39.4%, 파인애플은 25.5%, 바나나는 23.8%, 레몬은
16.5% 감소하였음. 열대과일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이들 품목이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든 때문인.

열대과일 수입동향

<table>
<thead>
<tr>
<th>품목</th>
<th>수입액(천달러)</th>
</tr>
</thead>
<tbody>
<tr>
<td>오렌지</td>
<td>58,605</td>
</tr>
<tr>
<td>키위</td>
<td>5,192</td>
</tr>
<tr>
<td>포도</td>
<td>13,172</td>
</tr>
<tr>
<td>파인애플</td>
<td>11,116</td>
</tr>
<tr>
<td>바나나</td>
<td>37,801</td>
</tr>
<tr>
<td>페론</td>
<td>3,367</td>
</tr>
</tbody>
</table>

4.3. 중국농산물 수입동향

○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수입은 감
소하였으나 축산물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농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5.2%가 감소한 166,195천달러를 수입하였고 축산물은 249.4%가
증가한 10,754천달러를 수입하였음. 임산물은 12.3%가 감소한 36,255
천달러를 기록함.

○ 특히 축산물 수입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구제역에 따른 최고기, 돼
지고기 소비감소가 당고기로 대체됨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됨. 2000년 2월까지 중국산 닭고기 수입은 전년 실적과 없
였으나 금년 2월까지의 수입액은 1,148천달러를 기록하였음. 오리고
기, 칠면조고기 등의 기타 가금육류도 전년동기에는 거의 실적이 없
거나 소량에 불과했지만 금년에는 크게 증가하였음.
중국산 농산물 수입동향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농산물</td>
<td>934,882</td>
<td>623,907</td>
<td>551,582</td>
<td>1,152,039</td>
<td>175,373</td>
<td>166,195</td>
<td>△5.2</td>
</tr>
<tr>
<td>축산물</td>
<td>46,440</td>
<td>11,794</td>
<td>15,055</td>
<td>23,411</td>
<td>3,078</td>
<td>10,754</td>
<td>249.4</td>
</tr>
<tr>
<td>임산물</td>
<td>293,836</td>
<td>136,624</td>
<td>213,717</td>
<td>282,634</td>
<td>41,443</td>
<td>36,255</td>
<td>△12.5</td>
</tr>
<tr>
<td>수산물</td>
<td>271,543</td>
<td>197,090</td>
<td>413,077</td>
<td>486,198</td>
<td>96,973</td>
<td>86,177</td>
<td>△11.1</td>
</tr>
<tr>
<td>계</td>
<td>1,546,703</td>
<td>971,415</td>
<td>1,193,461</td>
<td>1,944,282</td>
<td>316,867</td>
<td>299,381</td>
<td>△5.5</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 통합공사
Ⅴ.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1)

1.1. 쌀

○ 2000 양곡연도 공급량은 609만 1천톤(생산 526만 3천톤, 수입 10만 6천톤, 전년이월 72만 2천톤), 수요량은 501만 2천톤(식량 444만 4천톤, 가공 17만 3천톤, 기타 39만 5천톤), 연말재고량은 107만 9천톤인 것으로 잠정검정되었으며, 자급률은 10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쌀 도매가격 통합 (호남미, 상품기준)

주) 평년은 (998~00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시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taehun@krea.re.kr)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2000년 백류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대비 31.5% 감소한 22만 7천톤임. 이중 쌀보리가 10만 3천톤, 갈보리가 3만 7천톤, 백두보리가 8만 7천톤이 생산됨.

2001년산 쌀보리 수매가격은 전년대비 4% 인상되어 쌀보리는 3만 3690원(조곡 1등품, 40kg), 갈보리 1등품은 3만 1490원으로 결정됨.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갈보리 기준)

주) 평균은 1998~2000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01년 1/4분기 쌀보리 도매가격은 6만 8천원/70kg(상품 기준)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전년대비 3%하락하였으며 평년과 비슷한 수준임.

1.3. 대 두

○ 2000년 쌀생산량을 보면 작황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재배면적이 약간 감소하여 전년대비 2.5% 감소한 11만 3천톤이 생산됨.

○ 쌀 도매가격은 2000년 6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견고하게 유지하였으며 특히 2001년 2월에는 전월대비 16%하락하였음. 4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 70kg당 17만 6천원(상품 기준)수준이며 전년대비 28%. 평년대비 8% 낮은 수준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미,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8~99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동수조합농사
1.4 고구마

○ 2000년 고구마의 작황은 전년과 비슷한 2,136kg/10a 수준이었으나 재배면적이 1만 6천ha로 전년대비 19.7%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34만 5천톤에 이르렀다.

○ 고구마 도매가격은 2000년 12월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4월 현재 2만원/15kg(상품)까지 상승함. 4월 고구마가격은 전년대비 29% 상승한 수준이며 평년대비 7% 높은 수준임.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8~2000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자료곡물

○ 2000년 자료곡물 수입을 보면 옥수수 수입은 668만 3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9.2% 증가한 반면 밀은 전년대비 57.4% 감소한 80만 3천톤이 수입
2001년 1~2월 수입을 보면, 옥수수는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한 87만 3천톤 수입되었으며, 밀은 12만 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함. 전체 사료용 곡물은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한 99만 8천톤 수입됨.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옥수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입량</td>
<td>천톤</td>
<td>6,524</td>
<td>5,335</td>
<td>6,122</td>
<td>6,683</td>
<td>976</td>
</tr>
<tr>
<td>단가</td>
<td>US$/톤</td>
<td>143</td>
<td>125</td>
<td>108</td>
<td>105</td>
<td>103</td>
</tr>
<tr>
<td>수입액</td>
<td>백만US$</td>
<td>965</td>
<td>667</td>
<td>661</td>
<td>703</td>
<td>101</td>
</tr>
<tr>
<td>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입량</td>
<td>천톤</td>
<td>1,096</td>
<td>2,349</td>
<td>1,902</td>
<td>809</td>
<td>157</td>
</tr>
<tr>
<td>단가</td>
<td>US$/톤</td>
<td>141</td>
<td>115</td>
<td>98</td>
<td>109</td>
<td>107</td>
</tr>
<tr>
<td>수입액</td>
<td>백만US$</td>
<td>154</td>
<td>271</td>
<td>186</td>
<td>88</td>
<td>17</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입량</td>
<td>천톤</td>
<td>7,620</td>
<td>7,684</td>
<td>8,024</td>
<td>7,492</td>
<td>1,133</td>
</tr>
<tr>
<td>단가</td>
<td>US$/톤</td>
<td>147</td>
<td>122</td>
<td>105</td>
<td>105</td>
<td>104</td>
</tr>
<tr>
<td>수입액</td>
<td>백만US$</td>
<td>1,119</td>
<td>938</td>
<td>847</td>
<td>791</td>
<td>118</td>
</tr>
</tbody>
</tabl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 2)

2.1 배추

3월 하순부터 출하된 저온작장 배추의 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3월 하순 평균 4500원(5톤트럭당 환산가격 360만원)의 보합사를 보임.

2) 이 자료는 김영중 전문연구원(ykim@krai.re.kr), 서대식 연구원(dissuh@kra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 배추의 1/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157만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4/4 분기보다는 4% 낮은 수준이고, 평년 1/4분기보다는 22% 낮은 수준임.
- 가격이 낮았던 것은 겨울배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약 30% 증가한데다, 김치병장고 보급이 크게 늘어나 김장김치 소비기간이 길어져서 헐김치용 배추 수요가 여년보다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3월말 현재 저장 겨울배추의 출하대가 물량이 작년보다 약 25% 많아, 4월의 겨울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40% 평년동기보다는 13% 가량 낮은 상품 10kg당 5,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4월에 출하될 봄배추 물량은 작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이나 저장 겨울배추의 출하대가 물량이 많아 4월 봄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4월보다 35% 낮고, 평년 동기보다는 10% 가량 낮은 상품 5톤트럭당 24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5월에는 봄배추 출하피지적이 작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5월 도매가격은 작년(상품 5톤트럭당 134만원)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비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고령지배층의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강원과 영남이 6% 호남이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재배의향면적에 감소한 것은 연작 피해등으로 농가들이 작목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2 무

○ 무의 15kg당 도매가격은 3월 2일에 5,000원에서 3월 30일에는 2,850원으로 하락하였음. 3월 하순의 상품 가격은 2,854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40% 낮고 작년 같은 시기보다는 68% 낮은 수준임.

○ 가격이 약체를 보인 것은 저장무 자고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떨어진다. 작년산 감량무 중 저장에 부적합한 품종들이 일부 저장되어 상품성이 낮아 수요가 부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3월말 현재 저장무 출하가격동량이 작년보다 약 30% 많아 4월의 저장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60% 낮고 평년 동기보다는 35% 낮은 상품 15kg당 3,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4월에 출하될 봉무 농량은 작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이나, 저장무의 출하농량이 많아 4월의 봉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5% 낮고 평년 동기보다는 24% 낮은 상품 5톤트럭당 2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5월에는 저장무 출하가 완료되고 봉무 출하농량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아 5월의 도매가격은 작년(상품 5톤트럭당 280만원)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고령지구의 재배의향변경은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 역별로는 강원과 경남이 3%, 호남이 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재배의향
변경이 감소한 것은 연작 피해로 농가들이 작목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3. 고 추

- 고추의 1/4분기 도매가격은 800원당 4,800원(확대 상품 기준)으로 작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평년 1/4분기보다 20%, 작년 동기보다
12% 높은 수준임.

- 이같이 작년과 평년에 비해 가격이 높았던 것은 2000년의 고추 생산
량이 1999년보다 10% 감소 적었고, 3월말 현재 재고량도 작년보다
6% 가량 적기 때문임.
○ 3월 조사에서는 온해 고추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연작피해가 심해지고 노력이 많이 들어 고령화 농가들이 참여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임.

○ 재배방법별로는 밀경재배가 3% 감소하고, 단수가 높은 턴널 재배는 작년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월 조사결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3월말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6% 적은 2만 6,300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4월 이후 도매가격은 평년과 작년보다 높은 화건 600g당 4,9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산동성 고추의 2월 민간수입원가는 600g당 4,500~4,800원, 도매원가는 4,800~5,000원이었으나, 3월에는 산지가격과 환율이 상승하고 저장중 감량도 늘어나 민간수입원가는 4,900~5,000원, 도매원가는 5,100~5,200원으로 상승하였음.

○ 그러나 국산 고추가격이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년 3~7월중 중국으로부터 수입될 물량 5천여톤과 작년 8~금년 2월까지 수입된 4,400톤을 더하면 수입량은 1만여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24. 마 는

○ 마늘의 1/4분기 도매가격은 1kg당 1,615원(단지형 상품 기준)으로 작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작년 동기보다 11% 높지만 평년 1/4분기보다는 27% 낮은 수준임.
고추 도마개격 동향 (화건, 성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3월 하순가격이 하락한 것은 광우병어에 대한 심리적 영향으로 과고기 소비가 감소하여 마늘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저율관계로 수입된 냉동마늘이 국내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재고부담을 덜기 위하여 수입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올해 마늘수확면적은 작년보다 11% 감소한 4만 200ha로 추정됨(농업 관측센터 2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품종별로 보면 한지령은 8%, 난지령은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작년산 마늘가격이 낮아 마늘매매농가들이 양파, 월동배추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임.

○ 예상단수 조사결과, 한지령은 평년보다 2% 높고, 난지령은 1%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구비대가인 4월 중순 이후의 기상에 따라 작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추정 재배면적에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올해 마늘생산량은 43만 3
천톤으로 추정됨. 여기에 이월량 1만 2천톤, 수입량 3만 3,800톤 (MMA 12,538톤 포함) 등 총공급량은 47만 9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산 공급량보다 약 5% 적은 수준임.

○ 따라서 올해산 마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난지형 상품 kg당 작년보다 2% 가량 높은 1,7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3월 현재 중국산 간마늘의 민간수입 도매원가는 kg당 4,000원이고, 신선마늘은 3,600원의 높은 수준이므로 민간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저렴한가격에 적응되는 냉동마늘의 민간수입 도매원가는 1,470원으로 국내산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음.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25. 양파

○ 양파의 1/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620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다 19% 높으나, 평년 동가보다는 8% 낮고, 작년 4/4분기보다도 14% 낮은 수준임. 그러나 3월 2일에 705원에서 점점 가격이 하락하여 3월 30일에는 570원으로 하락하였음.

○ 3월 중 하순 이후 가격이 뚜렷적으로 하락한 것은 올해 과잉생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장업자들이 저장양파의 출고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임.

○ 올해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기존의 마늘 재배면적이 대거 유입되어 작년보다 12% 이상 증가한 1만 8840ha가 될 것으로 전망됨(농업관측센터 2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자). 품종별로 보면 조생종은 24%, 중간생종은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여성단수 조사결과 단수는 평년보다 5% 높고 작년보다는 17% 높은 6,120㎏이 될 것으로 나타남. 조생종은 평년보다 7% 높고 중간생종은 4% 높을 것으로 조사됨.

○ 추정재배면적에 여성단수를 적용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32%, 평년보다 39% 많은 115만 4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MMA 1만 8천여톤을 더하면 총공급량은 작년보다 32% 많은 117만 2천톤으로 추정됨.

○ 공급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년산 양파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높은 상품 kg당 400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지표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6 대 파

○ 대파의 1/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564원으로 작년 4/4분기보다 25% 평년 동기보다는 19% 낮은 수준임.

○ 가격이 낮은 것은 겨울대파 생산량이 많은데다 축우병에 대한 심리적 영향으로 쇼고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대파 수요도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2월에 자율폐기된 면적이 449ha로 계획면적인 550ha에 미달되었음.

○ 가격하락으로 출하가 지연된 남부지방의 겨울대파 물량이 4월에 출하가 집중되면서 4월 가격은 약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겨울대파 주산지인 전남과 경남의 정식예정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11%, 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지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5~6월에 출하될 충부지방의 시설 대파 재배면적은 2월 중순에 있었던
   대시로 인해 작년보다 약 5% 줄어들고, 출하시기도 15~20일 정도 늦춰
   질 것으로 보이며, 작황도 평년보다 약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5~6월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7 쪽 파

○ 쪽파의 1/4분기 도매가격은 10kg당 14,754원으로 작년 4/4분기보다는 40% 
   높았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12% 낮은 수준이었음. 특히 3월 2일에 14,000
   원에서 3월 30일에는 7,00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가격이 하락한 것은 충청, 호남, 제주지역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
   하였기 때문임.
폭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4~6월의 일쪽파 출하량은, 수확에경면적이 작년보다 많고 작황도 평년 수 준이어서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4~6월 가격은 평년이나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4~6월의 쪽파 파종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조 사되었음, 지역별로는 경기가 3%, 충청이 5%, 호남이 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28 감 자

○ 감자 수미의 1/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kg상자당 8,715원으로 작년 4/4 분기보다는 4% 낮고, 평년 동기보다는 23% 낮은 수준임.

○ 3월의 수미 도매가격은 2월보다 27% 상승한 상품 20kg당 9,490원으로 가격이 낮았던 작년동기보다는 33% 높았으나, 평년동기보다는 9% 낮은 수
준이었음.
○ 작년산 고랭지 감자와 저저장이 많아 가격이 낮았던 수미는 북한으로 5,000톤을 지원하기로 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임.

○ 5월에 주로 놓하되는 제주도 겨울감자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8% 적은 1,755ha로 조사되었고, 작황은 평년수준으로 작년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제주도 겨울감자의 출하량은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4~5월에 놓하되는 남부지방의 하우스 봉감자의 수확예정면적은 작년보다 약 3% 증가하고, 6~7월에 놓하될 노지 봉감자는 약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수미의 4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약간 적고 5~6월 출하량은 약간 많을 것으로 보여, 4~6월 가격은 평년 가격을 약간 밑돌면서 5월 상순경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저의 4~5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4~5월 가격은 작년보다는 높으나 평년 가격보다는 약간 낮게 형성되면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3~5월의 고랭지감자 파종의향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약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정선, 황천, 형성군이 10% 내외 감소하고 양구는 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8. 오 이

○ 2월에 급상승세를 보였던 오이의 도매가격은 3월에는 하락세를 보여 하순에는 평년가격 수준이었음.

○ 3월초까지 가격이 높았던 것은 후가상승으로 겨울철 가온 시설재배면적
이 줄어들고, 일조량이 적어 작황도 부진하여 줄매량이 적었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출하량과 단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되었음.

○ 4월 출하물량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고 예상단수가 낮아 작년보다 약 7% 적을 것으로 보여 4월 가격은 작년(추정 상품 : 17,000원, 백다다
기 상품 : 20,0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5월 가격은 단수가 회복될 경우 평년 시세를 약간 밀도는 하락세를 보일 전망임.
오이(취청)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작년 여름 오이 가격이 높았던 관계로 4~6월의 정식의향면적이 작년보다 다 1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경기, 충청의 경우 2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월의 대설 피해로 정식시기가 늦춰지고, 부여에서는 토마토에서 오이로 전환되는 면적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호남은 보식하는 면적 등 100%가 늘어나고, 강원과 경남은 각각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의향조사결과와 같이 정식면적이 크게 증가할 경우 4~6월에 경작한 오이가 본격 출하될 6~9월의 오이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28. 호 박

○ 2월에 상승세를 보였던 호박 도매가격은 3월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캘리아는 3월 하순에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 3월초까지 가격이 높았던 것은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약간 감소하였고, 일
조량 부족으로 작황도 다소 부진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호박(이호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호박 가격 그래프]

주: 평년가격은 1995.1~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4월에 출하될 이호박 물량은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4월 가격은 작년 수준(상품 10kg: 20,000원)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반면 주키니 물량은 많을 것으로 보여 계속 적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5~6월 호박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 시계를 약간 움도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4~6월의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경기 8%, 강원 3%, 충청 15%, 호남이 11% 증가하고, 영남은 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3. 과일류 3)

3.1 사과

○ 1/4분기의 사과의 도매가격은 150원, 상가당 상품가중으로 1월 17,400원, 2월 17,900원, 3월에는 24,100원으로 상승하였음. 1월과 2월에 사과 가격이 낮았던 것은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로 소비실탐가 위축되었기 때문임. 3월 사과 가격이 높았던 것은 대체 과일인 감귤, 단감, 오렌지 등의 공급량이 적고, 1~2월 대설과 기온 하락으로 인한 수박, 참외, 토마토 등의 신선 과제류의 출하가 부진하였으며, 정부가 수매한 사과를 「우리 농산물 나누어 먹기」사업으로 시장에서 격리 하였기 때문임.

○ 2/4분기 사과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43%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대적 과일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2/4분기의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table>
<thead>
<tr>
<th>사과 공급 전망</th>
<th>단위</th>
<th>2000년</th>
<th>2001년</th>
<th>전년대비</th>
</tr>
</thead>
<tbody>
<tr>
<td>재고량(4월초)</td>
<td>천톤</td>
<td>75</td>
<td>77</td>
<td>3.7%</td>
</tr>
<tr>
<td>재배(의향)면적</td>
<td>천ha</td>
<td>29</td>
<td>28</td>
<td>-2.3%</td>
</tr>
<tr>
<td>생산량(예상)</td>
<td>천톤</td>
<td>489</td>
<td>477</td>
<td>-2.4%</td>
</tr>
</tbody>
</table>

3) 이 자료는 이용보 부연구위원(yeslee@krei.re.kr), 박준기 전문연구위원(jpark@krei.re.kr)
한석호 연구원(shoha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논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랍.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 (2만 9,063ha)보다 2% 감소한 2만 8,400ha가 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3% 정도 줄고, 경남지역은 1%, 충청지역은 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품종별 재배면적은 주 품종인 후지가 4% 정도 줄고, 쓰가루는 6% 정도 줄어드는 반면, 추적출하가 가능한 중생종인 흑진은 7% 정도 늘고 양곳 등 기타 품종도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 재배면적 분석결과, 신규 조성면적은 후지가 4%, 흑진은 7%, 기타품종은 6% 정도 지난해보다 늘릴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신은 저수고 밀식재배(M9) 유도로 후지를 중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원면적은 후지가 6%, 쓰가루가 6% 기타품종은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후지와 쓰가루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

사과 도매가격 동향

주: 연평균 도매가는 기념품 시장 도매가격으로 인산가능의 당면 8~9년 7월의 월별 변동량 기준평균이며, 1995년 통계기준.

자료 : 서울시 농수산물중심
올해 사과 성과면적은 지난해보다 2% 정도 적은 2만 800ha 수준이 됨으로 전망됨. 포도면 성과면적 분석결과, 후지정는 3%, 쓰가루는 4% 줄어드는 반면 홍로와 기타 포도는 각각 2%, 1% 늘어남 것으로 나타나, 후지와 쓰가루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중생종인 홍로와 기타 포도의 생산량은 늘어난 전망임.

3.2 배

1/4분기의 배의 도매가격은 15kg 상자당 상품가순으로 1월 19,200원, 2월 23,000원 수준에서 3월에는 30,400원으로 상승하였음. 1월과 2월 이래 배 가격이 낮았던 것은 생산량이 많아 공급량이 지난 해보다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소비가 둔적기 때문임. 3월 배 가격은 대쪽 파일인 단검과 감귤의 출하량과 오렌지 등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적고, 1~2월 대설과 기온 하락으로 인한 수박, 참외, 토마토 등 신선 과채류의 출하 부진과 정부 수입한 배를 ‘우리 농산물 나누어 먹기’ 사업으로 시장에서 겪치하였기 때문임.

2/4분기 배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3%정도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저장 배의 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2/4분기 배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table>
<thead>
<tr>
<th>배 공급 전망</th>
<th>단위</th>
<th>2000년</th>
<th>2001년</th>
<th>전년대비</th>
</tr>
</thead>
<tbody>
<tr>
<td>재고량(4월초)</td>
<td>천톤</td>
<td>36</td>
<td>35</td>
<td>-3.1%</td>
</tr>
<tr>
<td>재배(의향)면적</td>
<td>ha</td>
<td>26,206</td>
<td>25,630</td>
<td>-2.2%</td>
</tr>
<tr>
<td>생산량(예상)</td>
<td>천톤</td>
<td>324</td>
<td>356</td>
<td>10.0%</td>
</tr>
</tbody>
</table>

올해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2만 6,206ha)보다 2% 감소한 2만 5,630ha
가 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은 1% 정도 줄고, 충청지역은 8%, 호남지역은 3%, 영남지역은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최근에 배 가격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품종별로는 주 품종인 신고는 2% 정도 줄고, 강상량은 5% 정도 줄어드는 반면, 추석 출하가 가능한 완향과 향금배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성질 등 기타 품종은 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분석결과, 신규 조성면적은 추석출하가 가능한 중생종인 완향을 중심으로 다소 늘어나며, 폐원면적은 신고, 강상량 그리고 만성종인 만성질 등을 중심으로 늘릴 것으로 나타남.

해 도배가격 동향

주 : 영정군 도배가격은 기력동사장 도배가격으로 연산기준의 당년 8월 ~ 연 7월의 월별 반입량 가중평균이며, 1995년 불변가격임.
자료 : 서울시 농수산물중심
○ 벼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4% 정도 늘어난 1만 3,800ha 수준에 될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 성목면적은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생종인 장밀량이 8% 정도 증가하는 반면, 추적 관력가 가능한 황금바. 원종의 성목면적은 각각 7%, 8%씩 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품종인 산고의 면적이 5%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3 감귤

○ 1/4분기의 감귤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1월 14,300원, 2월 15,300원, 3월 21,400원 수준이었음. 감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월 17%, 2월 53%. 3월 두 배 높은 수준으로서, 평년에 비해서는 1~2월 25~28%, 3월 3% 낮은 수준이었음.

감귤 도매가격 동향

주: 일별가격은 전후 3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95.5~'00.4월의 일별가격 평균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평균임.
차로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4분기 감귤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감귤 생산량이 적어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었고, 1~2월 대설과 일조량부족으로 토마토, 참외 등 신선과채류의 공급량도 적었기 때문임.

○ 1~2월 오랜지 수입량은 1만 7,000톤 수준으로 작년 동기(1만 5,400톤 수준)보다 10% 많은 수준. 미국 오랜지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어 4월 상순 현재 현지 판매가격은 14Kg당 14~16$ (FOB가격기준)로 지난달 동기보다 2~3$ 정도 높고, 작년수준인 10%보다 50%정도 높음.

○ 성출하기인 미국 오랜지 현지가격이 지난해보다 높고 환율도 3월 이후 급등함에 따라 수입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4~5월 오랜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귤 재배면적이 관련의향조사 결과, 올해 감귤 수확면적은 작년보다 9% 정도 적은 2만 4,360ha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페원 등으로 260ha 정도 재배면적이 줄 것으로 추정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감귤(영) 휴식년제’를 도입할 면적은 2,200ha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감귤 품종별 재배의향면적은 온주밀감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 것으로 나타났고, 만복유는 34% 정도 늘어남 것으로 나타남.

○ 온주밀감면적은 모든 품종에서 줄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조상동면적과 종만생면적이 각각 12%, 20%씩 줄 것으로 나타났음. 만복유 재배의향면적은 품종별로 차이가 나는데, 한라봉(부지화)은 73%나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건은 7% 정도 줄 것으로 조사됨.
공급전망

<table>
<thead>
<tr>
<th>단위</th>
<th>2000년</th>
<th>2001년</th>
<th>전년대비</th>
</tr>
</thead>
<tbody>
<tr>
<td>재고량(4월초) 톤</td>
<td>4,300</td>
<td>2,200</td>
<td>-49.8%</td>
</tr>
<tr>
<td>재배(의향)면적 ha</td>
<td>27</td>
<td>24</td>
<td>-9.2%</td>
</tr>
<tr>
<td>생산량(예상) 천톤</td>
<td>563</td>
<td>657</td>
<td>15.6%</td>
</tr>
</tbody>
</table>
주: 재고량은 월통은주감금의 재고량임. 재배면적은 수확면적 기준임.

3.4 단감

○ 1/4분기의 단감 도매가격은 부유 상품 15kg당 1월 15,400원, 2월 19,200원, 3월 27,600원 수준이었음. 단감가격은 지난 해에 비해 1월과 2월은 각각 33%, 12% 정도씩 떨었고, 3월은 40% 정도 높은 수준으로서, 평년에 비해서는 13~42% 낮은 수준이었음.

단감 도매가격 동향

주: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95.5~00.4월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월 하순이후 단감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단감 출하량이 수확기에 집중되어 저장량이 적었고, 감귤, 참외, 토마토 등 대처파일의 공급량이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임.

### 단감 공급량 추정

<table>
<thead>
<tr>
<th>공급량 (톤)</th>
<th>생산량 (A)</th>
<th>수출량 (E)</th>
<th>'00.8~'01.3월 출하량 (C)</th>
<th>4월이후 출하량 (A-B-C)</th>
</tr>
</thead>
<tbody>
<tr>
<td>99년산</td>
<td>214,000</td>
<td>1,980</td>
<td>208,864</td>
<td>3,256</td>
</tr>
<tr>
<td>00년산</td>
<td>227,000</td>
<td>3,800</td>
<td>221,116</td>
<td>2,084</td>
</tr>
<tr>
<td>'00/'99 증감율(%)</td>
<td>6.1</td>
<td>102.1</td>
<td>6.0</td>
<td>-36.0</td>
</tr>
</tbody>
</table>

주: '00년산 수출량과 재고량은 3월 말 기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00년산 단감 출하가 성출하기에 집중되어 3월 말 현재 단감 저장량은 작년 동기보다 36% 정도 적은 2천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한편 저장단감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저난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올해 단감 재배면적은 작년(2만 3,800ha)보다 3% 정도 적은 2만 3,200ha가 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은 3% 정도 희소하고, 경북지역은 1%, 전남지역은 4%정도씩 각각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이처럼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1996년부터 단감 가격이 계속 낮아 져기 때문으로 분석됨.

### 3.5 포도

1월 국내산 포도가격은 상품 10kg당 2만 2,700원으로 지난해 1월 가격보다 38% 정도 높은 수준이었음. 저장용 포도인 세단 생산량이 적은 데다 외국산 포도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임.
올해 수입포도는 1월과 2월에 미국과 치레에서 각각 117톤, 53톤이 수입되었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적은 양임. 1/4분기 상품 9kg당 1월 수입포도가격은 지난해보다 24% 정도 낮은 3만 8,600원 수준이었고, 2월 수입포도가격은 지난해보다 14% 정도 낮은 4만 500원 수준이었음. 그러나 2월 포도 수입량이 크게 줄고, 수박, 참외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이 적어진 영향으로 3월 수입포도 가격은 4만 7,9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정도 높았음.

올해 포도 재배의향 면적은 지난해(2만 9,200ha)보다 2% 정도 감소한 2만 8,600ha 수준임. 재배방법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노지재배와 가온 재배는 각각 3% 정도씩 줄어드는 반면, 무가온재배면적은 6% 정도 느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지난해 겨울 기름감 상승과 통역 피해로 인해 하우스재배면적이 줄고 생산이 저연됨에 따라, 4~5월 출하예정면적은 줄어들이고 6월 출하예정면적은 늘어날 전망임.

포도 도매가격 동향

주 : 5~10월은 채별말리, 11~4월은 채단(세대단) 기준임.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포도 재배법별 재배의 함면적의 지난해 대비 증감율

(단위 : %)

<table>
<thead>
<tr>
<th>노지재배</th>
<th>하우스재배</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가 은</td>
<td>무가온</td>
<td></td>
</tr>
<tr>
<td>-2.6</td>
<td>-3.0</td>
<td>5.7</td>
</tr>
<tr>
<td></td>
<td></td>
<td>-2.0</td>
</tr>
</tbody>
</table>

자료: 농업관측센터 2월 28일 표본농가 조사치.

○ 올해 하우스포도는 풋길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박, 오렌지 등 대체과일에 출하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4분기 하우스포도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3.6 수박

○ 2001년 수박의 재배면적은 작년(30,451ha)보다 4% 정도 감소한 29,3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작형별로는 시설면적은 작년(20,952ha)보다 2% 줄어든 20,6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노지면적은 작년(9,499ha)보다 8% 정도 줄어든 8,7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올해 1/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10kg 상자당 상품가격으로 1월 9,800원, 2월 1만 4,300원, 3월 2만 300원 수준이었음. 1~2월 수박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았고, 3월 가격은 높았음.

수박 재배법별 지배(의형)면적의 지난해 대비 증감율

(단위 : 천ha, %)

<table>
<thead>
<tr>
<th></th>
<th>2000년</th>
<th>2001</th>
<th>’01년/’00년 증감율</th>
</tr>
</thead>
<tbody>
<tr>
<td>재배(의형)면적</td>
<td>30.5</td>
<td>29.3</td>
<td>-39</td>
</tr>
<tr>
<td>하우스재배</td>
<td>21.0</td>
<td>20.6</td>
<td>-19</td>
</tr>
<tr>
<td>노지재배</td>
<td>9.5</td>
<td>8.7</td>
<td>-82</td>
</tr>
</tbody>
</table>
○ 1~2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수박 출하량이 지난해동기보다 늘었고, 사과, 배, 딸기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3월 수박 가격은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가, 대설과 저온현상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출하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 강화, 토마토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도 적어서 가격은 여년보다 높았음.

○ 수박 3~4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3%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5월 이후 정식의향면적은 5~7%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3~4월 하우스수박 정식(의향)면적이 늘어난 것은 올해 1~2월 대설과 기온저하로 정식시기가 보름이상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6~7월 하우스 수박가격이 평년수준이상으로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수박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일별가격은 전주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 평균치임. 9월~12월까지는 상품 10kg 상장가격을 6kg 단위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01년 4~5월 수박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9%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4~5월 수박가격은 지난해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수박품질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수출용 토마토 등의 가재류가 일본의 검역규제 때문에 국내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박가격은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3.7 참외

○ 참외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올해 참외 재배면적은 지난해(10,203ha)보다 4% 정도 줄어든 9,8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정식 의향면적은 줄어든 것은 참외소비가 둔화되어 지난해 참외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임.

○ 월별 정식의향면적 조사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정식면적은 지난해보다 6~7% 정도 줄고, 3월 이후에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2월 경식면적은 6%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table>
<thead>
<tr>
<th>참외 재배(의향)면적의 전년대비 증감율</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재배(의향)면적</td>
<td>2000년</td>
<td>2001년</td>
<td>'01년/'00년 증감율</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0.2</td>
<td>9.8</td>
<td>-3.5</td>
</tr>
</tbody>
</table>

○ 1/4분기 참외 도마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2월 51,400원, 3월 53,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평년보다 보다 모두 높았음. 2월 이후 참외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가, 대결과 자원현상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었고, 수박, 토마토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올해 4월에 출하될 참외 출하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4월 참외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5월 참외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참외 도매가격 동향

주 : 평년가격은 '96~'00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3일 이동 평균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5월 참외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 정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수출용 토마토 등의 과채류가 일본의 경계규제 때문으로 국내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에 출하될 전체과일 불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 축산

4.1. 한육우

○ 2000년 12월 한육우 총사육수수는 159만두로 2000년 9월 171만두보다 12만두(△7.2%) 감소하였을
1999년 12월보다는 36만두(△18.5%) 감소하였음. 2001년 3월에는 147만 8천두로 3개월 전보다 11만 4천두(△7.2%), 작
년 동기보다 34만 3천두(△18.9%) 감소하였음.

○ 2001년 3월에는 100두미만을 사육하는 종소규모 사육농가뿐 아니라 사육기반이 안정된 100두 이상 대규모 농가에서도 약간 감소하여 호
당마리수는 2000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2000년 12월 가입암소수수는 9월 73만 8천두보다 5만 1천두(△6.9%) 감소한 68만 7천두였음. 2001년 3월에는 64만 2천두로 3개월 전보다
4만 5천두(△6.6%), 작년 동기보다 16만 7천두(△20.6%) 감소함.

○ 한육우 사육수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암소출산율 하락으로 송아지
생산수수가 감소하였고, 최근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선호하면서 암소
도축율이 증가하여 가입암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임.

○ 한육우 사육수수가 감소하면서 사육가구수도 같이 감소하여 2000년
12월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만호로 9월에 비해 1만 5천호(△4.9%) 감소하였음. 2001년 3월에는 26만 7천호로 2000년 12월보다 2만 3천
호(△7.9%) 감소, 작년 동기보다는 6만 9천호(△20.5%) 감소하였음.

4) 이 자료는 농림수산연구원 신نان 양조사 연구원(yscho@krea.re.kr)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서작성은 한나라만으로 연락받림.
한국무 사육두수 변동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1. 2001년 사육규모별 사육호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50두미만 소규모 사육농가가 감소하였고, 50두이상 사육농가는 3개월전 수준을 유지하였음.
   - 50두미만: (00.3) 332천호 → (00.12) 286 → (01.3) 263
   - 50두이상: (00.3) 4.4천호 → (00.12) 4.0 → (01.3) 4.0


- 2001년 1~3월까지는 19만 6천두가 도축되어 2000년 같은 기간보다 33.9% 감소하였음.

○ 2000년도에는 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도축두수도 감소하여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많이 거점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쇠고기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였음.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Graph]

자료: 농협중앙회, 현우리정보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1998년 3/4분기 이후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로 산지가
격은 상승하였음. 2000년 1월에는 500kg 산지 수소가격이 290만원대를 상회하였으나.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산지가격은 240만원대까지 하락하였음. 이후 점차 회복되다가 2001년 1/4분기에는 ESE와 구제역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3월 500kg 산지 수소가격이 268만원으로 하락하였음. 3월 24일부터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 16일까지 가축시장이 폐쇄되었음.

-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가입완료에 대한 도축이 증가하면서 국내 사육기반은 많이 악화되었음.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선호하면서 암소도축이 늘어나 한우 암소 가격은 2001년 3월 23일 현재 296만 6천원으로 수소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큰소금(천원/500kg) : (00.6) 2,501→(‘00.9) 2,594→(‘00.12) 2,900→(‘01. 1) 2,907→(‘01. 2) 2,730→(‘01. 3) 2,692
- 큰소금(천원/500kg) : (00.6) 2,792→(‘00.9) 2,907→(‘00.12) 2,980→(‘01. 1) 2,985→(‘01. 2) 2,963→(‘01. 3) 2,974
- 수송아지가격(천원/두) : (00.6) 1,285→(‘00.9) 1,315→(‘00.12) 1,339→(‘01. 1) 1,335→(‘01. 2) 1,428→(‘01. 3) 1,498
- 쇠고기평균경직가격(원/kg) : (00.6) 7,484→(‘00.9) 7,550→(‘00.12) 7,748→(‘01. 1) 7,878→(‘01. 2) 7,830→(‘01. 3) 7,430

4.2. 점 소

○ 2000년 12월 출 사육두수는 9월보다 2천두(0.4%). 1999년 12월보다 9천두(1.7%) 증가한 54만 4천두였음. 그러나, 2001년 3월에는 54만두로 3개월 전보다 4천두(△0.7%) 감소하였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3천두(0.6%) 증가함.
○ 2000년 12월 사육두수가 증가한 이유는 체세포 패널티의 완화와 도태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저능력우 도태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01년 3월 사육두수가 감소한 것은 저능력우 도태가 감소하였으나, 2000년의 인공수정실적이 18% 감소하여 승아지 생산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0년 12월 가입양소 두수는 9월보다 1천두(0.3%) 증가, 1999년 동기보다 8천두(2.2%) 증가한 37만 2천두였음. 2001년 3월에는 37만 3천두로 3개월 전보다 1천두(0.3%) 증가하였고, 작년 동기보다는 7천두(1.9%) 증가하였음.

![그래프]

차원: 농림부, 가축통계.

○ 199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하던 조소 사육기구수는 2000년 9월에는 1만 3천6백호, 12월에는 1만3천3백호로 3개월 전보다 3백호(△2.2%) 감소. 2001년 3월에는 1만3천2백호로 3개월 전보다 1백호(△0.8). 작년 동기보다 9백호(△6.4%)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0년 12월 2세이상 및 경산우 두수가 각각 31만 2천두, 30만 7천두로 3개월전 사육두수 유지하였음. 착취우 두수는 25만 5천두로 3개월전보다 2천두(Δ0.8%) 감소하였고, 1세미만 젖소는 11만 2천두로 3개월전보다 1천두(0.9%) 증가하였음.

○ 2001년 3월 연령별 마리수가 변화를 살펴보면, 2세이상 두수가 31만 2천두로 3개월전 사육두수를 유지하였고, 경산우 두수는 30만 8천두로 3개월전보다 1천두(0.3%) 증가함. 착취우 두수는 1만두(3.3%) 증가한 26만 5천두, 1세미만은 6천두(Δ5.4%) 감소하였음.

(jPanel)

자료: 농업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젖소 산지가격변동


4.3. 돼 지

○ 돼지 총 사육두수는 1990년대 들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 3월 구체적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사육가격이 하락하여 9월부터 감소하였음. 2000년 12월에는 821만 4천두로 3개월 전보다 15만 7천두(△1.9%) 감소하였고, 2001년 3월에도 819만 8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6천두(△0.2%) 감소하였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31만 1천두(3.9%) 증가하였음.

○ 모든수는 2000년 9월부터 감소하여 12월에는 3개월 전보다 2만두 (△2.1%) 감소한 91만 2천두였고, 2001년 3월에는 91만두로 2000년 12월보다 2천두(△0.2%), 작년 동기보다 4천두(△0.4%) 감소하였음.

○ 돼지 사육 가구수는 분기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음. 2000년 6월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9월에는 다시 감 소하였고, 12월에는 2만3천7백호로 3개월 전보다 3백호(1.3%)증가. 2001년 3월에는 1천 4백호(△5.9%), 작년 동기보다 1천8백호(△
7.4% 감소하였음.

그래프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돼지 산지가격 변동
  - 성돈(100kg) : '97년 17만 1천원 → '98년 17만 9천원 → '99년 19만 9천원으로 상승 추세였으나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7월 종순부터 하락함.

  - 2000년 하반기에는 돼지 산지가격이 폭락하여 10월 5일부터 민간수매를 실시하였음. 11월부터 반등을 보인 산지가격은 2001년 1월 15만 5천원, 2월 15만 2천원, 3월 15만 6천원으로 15만원대에서 보합을 보임.

  - 2001년 2월에 영국에서 구제역이 보고되고, 3월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구제역이 보고됨에 따라 EU에 대한 검역중단조치가 내려져 국내 수입량이 감소하여 4월에는 16만원대로 상승함. 4월 10일 현재 17만 3천원으로 상승하였음.
4.4 닭

○ 2000년 12월 닭 총 사육수수는 1억 254만수로 9월의 9,580만수보다 675만수(19.3%), 1999년 12월의 9,459만수보다 796만수(4.7%) 증가. 2001년 3월에는 9,892만수로 3개월 전보다 363만수(△3.5%), 2000년 3월보다 97만수(△1.0%) 감소하였음.
○ 산란계의 경우 대규모 사육농가에서 계란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여
신규입식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사육마리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00년 12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5,108만수로 3개월 전보다 230만
수(4.7%) 증가, 1999년 12월보다 86만수(△1.7%) 감소함. 2000년
12월 6개월평 이상 산란용 마리수는 3,657만수로 1999년 12월에
비해서 0.5% 증가하였음. 2000년 12월 사육가구수는 2,601호로 9
월에 비해 3.7% 감소하였고, 1999년 12월에 비해 10.3% 감소함.

- 2001년 3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4,935만수로 3개월 전보다 173만수
(△3.4%). 2000년 3월보다 176만수(△3.5%) 감소함. 2001년 3월 6
개월평 이상 산란용 마리수는 3,658만수로 2000년 3월에 비해서
5.4% 감소하였음. 2001년 3월 사육가구수는 2,569호로 2000년 12
월보다 1.2%. 2000년 3월에 비해 10.9% 감소함.

- 2000년 12월 육계 사육수수는 4,500만수로 9월에 비해 11.6%
1999년 12월에 비해서는 23.1% 증가하였음. 2000년 12월 육계
사육호수는 2,013호로 9월보다는 5.0% 감소, 1999년 12월보다는
6.2% 증가하였음.

- 2001년 3월 육계 사육수수는 4,336만수로 3개월 전보다 3.7% 감
소, 2000년 3월보다는 2.4% 증가하였음. 3월 육계 사육호수는
2,153호로 3개월 전보다 7.0%, 2000년 3월보다는 5.3% 증가하였음.

○ 계란의 산지가격 변동
- 계란의 산지가격은 2000년 5월까지는 1999년의 하락세가 지속되
어 541원까지 내려갔으나, 1999년 12월 산란실용계 입추 중단에
따라 2000년 6월부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9월에는 940원대
까지 회복되었음.
- 10월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초까지 하락하였으나, 이 후 점차 상승하여 12월에는 800원대에 이르렀음. 2001년에도 800 원대에서 보합을 보이고 있음.

○ 육계의 산지가격 변동
- 여름 성수기 수요증가로 2000년 7월 산지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추석이후 소비감소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11월말에는 920원 대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12월 상순에는 800원대까지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01년에 들어 전국적인 질병발생과 대설로 인한 계사 봉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혹한으로 생산성 또한 저하되여 공급 부족으로 산지가격이 상승하였음. 2001년 4월 10일 현재 1,800원에서 보합을 보이고 있음.

알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주 : 계란 산지가격은 2000년 이전은 대량기준이며, 그 이후는 특대기준임.
자료 :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 종계 벼아리 생산
- 2000년 산란용 종계벼아리 입후수수는 총 48만 7천수로 1999년 63만
  6천수에 비해 23.4% 감소하였음. 2001년 1~3월까지 종계벼아리 입
  후수수는 9만 8천수로 2000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6% 감소하였음.

- 2000년 육용 종계벼아리 입후수수는 총 364만 5천수로 1999년의 352
  만 5천수보다 3.4% 증가하였음. 2001년 1~3월까지 종계벼아리 입후
  수수는 92만 4천수로 2000년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하였음.

○ 닭고기 수입
- 2000년 닭고기 총 수입량은 6만 9천톤으로 1999년보다 44.3% 증가하
  였고, 2001년 1~2월까지는 15,640톤에 수입되어 2000년 같은 기간
  11,755톤보다 33% 증가하였음.
Ⅵ. 특별주제

○ 김치수요의 변화와 전망

○ 최근 WTO 농업협상의 논의동향과 전망
김치수요의 변화와 전망\(^1\)

1. 김치의 수급구조

○ 배추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김치 소비량을 추정한 결과 1995년 이후
  김치 소비량은 대체로 150만 톤 전후로 변동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136만 톤인 것으로 추정됨.

표 1 김치 소비량 추정결과

<table>
<thead>
<tr>
<th>연도</th>
<th>배추생산량</th>
<th>비중(%)</th>
<th>배추 수입</th>
<th>김치용 배추공급량</th>
<th>배추 김치</th>
</tr>
</thead>
<tbody>
<tr>
<td></td>
<td>볼</td>
<td>고랭지</td>
<td>가을</td>
<td>볼 수입</td>
<td>고랭지 수입</td>
</tr>
<tr>
<td>1995</td>
<td>2,885</td>
<td>29.6</td>
<td>10.8</td>
<td>59.6</td>
<td>0.07</td>
</tr>
<tr>
<td>1996</td>
<td>2,998</td>
<td>29.1</td>
<td>11.6</td>
<td>59.3</td>
<td>0.03</td>
</tr>
<tr>
<td>1997</td>
<td>2,702</td>
<td>32.6</td>
<td>12.6</td>
<td>54.8</td>
<td>0.06</td>
</tr>
<tr>
<td>1998</td>
<td>2,779</td>
<td>35.1</td>
<td>10.9</td>
<td>54.0</td>
<td>0.03</td>
</tr>
<tr>
<td>1999</td>
<td>2,524</td>
<td>37.2</td>
<td>15.2</td>
<td>42.6</td>
<td>0.35</td>
</tr>
</tbody>
</table>

단위: 천 톤

\(^1\) 김치용 배추공급량은 배추공급량(생산 + 수입 + 수출)에서 경매량(농협류 적용 참: 충
  용공급(생산 + 수입)의 35\%)을 감안하고, 다른 종도로 이용되는 배추 소비량(농협류
  적용 참: 8\%)를 제외한 값임.

2) 배추김치 소비량은 배추공급량에 원도배추수출율로 가설배추 53\%, 볼배추 45\%, 고랭지배추 40\%(임계조사평균)를 적용하고, 배추김치 부재료비율 25\%
  (농협주경정치)를 적용한 수치임.

3) 김치 생산량은 배추김치 비중 70\%를 적용하여 환산한 값임.

○ 공급주차별로는 가정생산 김치 59\%, 시판김치 34\%, 요식업체 생산김
  치 7\%의 비중을 점합. 시판김치 중에서 공장김치 생산량은 37만 톤
  으로 김치 소비량의 27\% 수준이며 대량수요처용 60\%, 가정용 30\%.
  수출용 10\% 수준으로 공급력, 대량수요처용 공급물량 중에서 절반이
  상은 단체급식용도이며, 나머지는 균등용과 요식업체용임.

---

1) 이 자료는 농업연합체연구부 이계림 부연구위원(ik1k1@krei.re.kr)이 작성하였으
  며 관련 문서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2. 김치의 국내 수요 분석

○ 김치 소비는 1980년 이후 연평균 25%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가정생산김치 소비는 가정내 식사 감소 추세가 포함되어 1995~99년 간 연평균 6.8%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정에

○ 최근 시판김치 수요 및 수출 증가경향에 따라 엄청수가 증가하고 대

기업이 경쟁적으로 진출하면서 공장김치시장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가정용 포장김치로 추출하는 대기업과 대량수요층 별고기시

장에 주력하는 농협과 영세기업으로 시장이 두텁게 구분되는 특징

을 보임. 김치시장에서 농협의 시장점유율은 약 8%이며, 포장김치의

14%, 군남식 21%를 점하고 있음. 김치업체 42개 업체 조사결과 당면

문제는 배추 등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폐수처리문제, 판

매확대 등인 것으로 조사됨.
서 소비하는 시판검증은 1995~99년간 연평균 7.7%의 증가추세를 보인다.

- 계절별로 1인 1일당 가출감취 소비량은 1975~99년간 연평균 3.5%씩 감소함. 반면 불경기와 고령자감취는 소득 증가와 식생활 패턴 변화로 신선배추 수요가 연중 평준화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1995년 이후 증가추세가 멈추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2 계절별 감취 소비량 추이(1인 1일)](image)

- 감취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 요인분석과 노동기회비용이 높은 가구일수록 시판검증율이 증가하며, 가구수 연령이 적고 학력이 높은 수록 시판검증율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됨. 감취 소비는 가구수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거주형태나 연령별・성별 구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50세 이상 계층에서 다른 계층보다 감취 선호가 높게 나타남.
○ 계절별 검쳐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자체감각탄성치는 -0.6~0.9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소득탄성치는 기절감치 수요의 경우 -0.44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는 반면 고령
지검치는 1.77로 최근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높게 나타남.

○ 검쳐 원재료의 배합률과 수율을 적용하여 1999년도 검치원료용 채소
류 수요를 추정한 결과 매주 1,505톤(생산량기준: 60%), 무 446~
523톤(31~36%), 고추 72~81톤(34~38%), 마늘 24~29톤
(5~6%), 생강 7~9톤(17~22%) 규모임.

3. 검쳐의 수출시장 분석

○ 검쳐 수출은 1988년 이후 연평균 13.5%씩 증가해 왔으며, 97% 이상
이 일본으로 수출됨. 특히 1999년에는 일본에서 다이어트 및 건강식
으로서 한국검치가 선호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수출이 전년에 비해
50%나 증가함.

○ 현재 검쳐 수출은 국내 생산의 1~2%, 일본 검치시장의 9.5%를 차지
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수출 증대의 잠재력은 매우 큽.

○ 검쳐수출 증대방안에 대해서 18개 수출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
검치 고유 브랜드를 부각하고 고유상품 캐릭터와 응기를 개발하여
일본 기무치와 차별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되어야 한다
고 응답함. 그 밖에 일본 소비자의 세밀한 기호에 대응한 위생 및 품
질관리, 소포장 개발, 다이어트식품, 건강식품으로서의 흥보 등 체계
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및 구매행태

○ 서울시내 686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조사 가구 대
  부분은 김치를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97.4%), 김치를 먹는 빈도
  도 식사 때마다 매번 먹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았음(76.7%). 1년 동
  안 소비하는 김치를 종류별로 조사해 본 결과 배추김치의 비중이 가
  장 됐으며(66.9%), 다음으로는 콩나물김치(16.8%), 작두김(9.3%)의 순서임.

○ 김치는 구입해서 먹지 않는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나(76.1%), 맞벌이 가
  정의 경우 경기적으로 구입해서 먹는 비율이(13.0%) 일반 가정보다
  (4.0%) 보다 높았으며,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김치를 구입해서 먹
  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
  상인 가구의 경우 경기적으로 구입해서 먹는 비율은 19.1%에 달함.

○ 김치를 구입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만들어 먹으며
  (83.9%), 가족이나 친지에서 조달해서 먹는 경우는 16.1%이었음. 김
  치를 담가 먹는 이유는 맞(70.5%)과 위생상태(17.9%) 때문으로, 김치
  는 한 달에 한번 담그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7.5%) 한번에 담그는
김치의 양은 5포기 이상을 담그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김치를 구입해서 먹는 이유는 주로 집에서 담그는 것이 번가롭고 (35.8%), 김치를 담글 시간이 없기 때문(33.2%)인 것으로 조사됨. 김치는 한 번 구입시 평균 3.7kg(10,496원)를 구입하며, 주로 한 달에 한 번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김치를 구입시 고려하는 사항은 답(50.3%), 가격(21.0%), 위생상태 (20.6%) 순서임. 소비자들이 농협김치를 구입할 경우는 주로 국내산 원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 회 사 저품을 구입할 경우는 다른 저품에 비해 맛이 있기에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시판김치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위생상태를 개선 하고 조미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됨.

○ 시판김치의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93.1%)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포장한 김치와 포장하지 않은 김치 모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8.9%로 절대적으로 많아 김치원산지표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

○ 향후 김치를 사서 먹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직접 담가 먹는 가구의 10.7%, 친척으로 전달하고 있는 가구의 25%가 향후 김치를 사서 먹겠다고 응답해 시판김치의 수요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5. 김치 수요 전망

○ 2005년까지 김치 수요는 1999년 이후 연평균 0.7%씩 원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인당 소비량은 1.5%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즉, 증가적으로 보면 김치 수요가 큰 폭으로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김치시장은 현 수준인 연간 130~140만 톤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로 전망되므로 김치원료 채소류 수요는 크게 줄지 않고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table>
<thead>
<tr>
<th>표 2  김치 수요 전망</th>
</tr>
</thead>
<tbody>
<tr>
<td>백주김치 (천톤)</td>
</tr>
<tr>
<td>1999 957</td>
</tr>
<tr>
<td>2000 950</td>
</tr>
<tr>
<td>2001 941</td>
</tr>
<tr>
<td>2002 934</td>
</tr>
<tr>
<td>2003 928</td>
</tr>
<tr>
<td>2004 923</td>
</tr>
<tr>
<td>2005 919</td>
</tr>
<tr>
<td>1999 ~ 2005 연평균증감율(%)</td>
</tr>
</tbody>
</table>

○ 고절발로는 1999년까지는 김치용 배추수요 중에서 가을배추가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에는 36%로 감소하는 반면 봄배추는 15%에서 22%로 봄배추는 37%에서 42%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김치 수요의 추세가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식생활의 경제화 추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시판김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며 특히 가정용 포장김치의 수요증대가 가장확실 것으로 전망됨. 시판김치수요 중에서 가정용은 2005년까지 연평균 13.8%의 증가추세를 보임 것으로 전망됨. 김치종류별로는 음답업체중 51.5%가 포기김치 생산을 확대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맞을 증시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할 것으로 나타남.

○ 일본에 대한 김치수출은 연평균 12~1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김치붐이 지속될 경우 20% 이상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시장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의 생산 기반을 유지되어야 하며, 수요에 맞게 식부면적의 계절별 조정과 필 요함. 고령지배추와 봄배추의 수율이 낮고 품질이 낮아 고품질 배추 생산을 위한 품종개발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김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홍보, 원 산지표시제 확대 등 국산김치를 차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고유브랜드로 수출하고, 한국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나 체험프로그램 등 이벤트를 개발하여 기속 적으로 홍보와 판촉을 추진해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근 WTO 농업협상의 논의동향과 전망

1. WTO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

○ UR 협상 종료시 합의에 의해 서비스 분야와 함께 자동협상의제로 작년부터 협상이 재개된 농업분야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농업개혁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추진해 왔음.

○ 현재 새로운 농산물 협상은 회원국들의 지난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임시골에 네 번 경기적으로 개최되는 WTO 농업위원회를 견고히 이어질간 별도의 시간을 내어 특별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필요시 회원국들의 협의에 의해 새로운 농산물 협상을 위한 특별회의만을 소집하여 협상이 이루어져왔음. 현재까지 새로운 WTO 농업협상은 새로운 협상의 내용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함부 협상을 위한 골격(Modality) 마련을 시도해 왔음.

○ 뉴라운드가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재개된 농업협상은 지난 3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7차 특별회의를 끝으로 제1단계 협상은 마무리 했음. 제1단계 농업협상에서는 주로 WTO회원국에 의해 제출된 44개 협상제안서와 3개의 기술적 문서(125개국 관련), 그리고 27개의 WTO 사무국 본부자료 등 새로운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들을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협상의 내용

---

1) 이 자료는 국제농업연구실 임경빈 부연구위원(jeongb@kreia.re.kr)이 작성하였으 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랍.
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개방, 국내 및 수출보조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분야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종종 관계와 보조금 감축방법을 비롯한 국영무역, 시장경제분야의 수입관리제도, 특별긴급관세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분야별로 제시하기도 하였음.

○ 또한 각국이 제출한 협상저안서는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별로 단독으로 자국의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종종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회원국들끼리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함.

○ 한편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3월에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7차 특별회의에서 W TO 회원국들은 작년 3월 이후 지금까지 6차례 걸쳐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한 1년간의 논의를 마감하고, 향후 2단계에서 1년간 벌일 협상작업을 결정하였음.

○ 또한 제7차 특별회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농업협상의 진행상황을 종간평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이번 회의를 통해 WTO 농업위원회 의장 ( Voto Bernales )은 주요국과의 협의와 WTO 회원국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1년간의 제 2단계 협상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음.

○ 농업위원회 의장명의로 은 제 2단계 협상계획과 작업일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농업협상 추진은 농업협정 20조, WTO 회원국들이 제출한 저안서 및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3차례의 특별회의에서 논의될 10가지 협상의제를 제시하였음.

○ 제 2단계 협상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협상의제는 다음과 같다: (1)관
새활당제와 수입관리방식, (2)관세, (3)감축대상보조, (4)수출보조, (5)수출전용, (6)국영무역, (7)수출제한, (8)식량안보, (9)식품안전, (10)농촌개발


○ 지금까지의 협상진행 상황평가와 협상결과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들은 제1단계 협상은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했고 각국의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으나 분야별로 강조하는 점은 각국 기본 입장에 따라 아직도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주요 협상 참여국 및 그룹별 입장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케언즈그룹은 농업의 비교역경가능(NTC)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이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농업협상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산물협상의 목표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 확립"이며 NTC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한 만큼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주요 경쟁이 되거나 무역학적 조치의 존속을 경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전 협상을 통해 농업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WTO제제내에 완벽하게 통합시켜야 하며, 카타르 각료회의에서의 포괄적인 뉴리온트 출범여부에 관계없이 농산물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케언즈 그룹내 폴란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개도국들은 \textit{UR} 협상의 결과가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으며 \textit{UR} 타결 이후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큰 건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선진국들이 농업개혁을 오해하며 추가적이기는 내용의 협상체약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일부 국가의 NTC추구로 인해 다른 나라 국민의 복지가 위협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보다 큰 농업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개될 제 2단계 협상은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위한 대안을 독립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 한편 미국은 이번 협상의 주요 목표로 관세와 무역시약적 국내보호의 상당수의 감축, 수출보조 철수 등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감축약속이 선진국과 개도국, 및 경제력 유무를 볼문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한국, EU, 일본 등 NTC그룹 및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농업 여건과 현실이 많은 협상체약서를 통해 드러난 만큼 이번 협상은 모든 국가가 통용되는 단일 해법이 아닌 각국 농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신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업의 비교적적균형이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농산물협상은 포괄적인 뉴라운드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하였음.

○ 한편 인도, 파키스탄 등 개도국은 지난 6년간의 \textit{UR}협상 이행결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일부 선진국의 무역의존적 보호 및 보호주의적 조치의 제기를 통해 해결해야 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제안에는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오히려 무역의존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 개도국우대조치가 이번 협상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었음.
- 비슷한 취지로 폐루, 이집트, 베네수엘라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무역무역적 조치로 인해 많은 개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조치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2. 향후 협상 전망 및 평가

○ 지난 3월에 개최된 제6차 및 7차 특별회의를 통해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제1단계 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그 동안 각국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종료되어 WTO농업협상은 제2단계 협상에 돌입하게 되었음.
- 비록 대부분의 WTO회원국들이 제1단계협상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고 평가하며 제2단계 협상추진 계획에 합의를 이룩했지만 새로운 농산물 협상에 대한 수출입규제의 거리안 입장차이로 인해 분야별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금까지 다가간 무역협상이 개도국의 이익을 무시한 채 선진국 이익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인식하에 이번 회의에서 많은 개도국들이 자체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새로운 농업협상과 관련된 그들의 의견과 입장들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는바, 상호 결집력과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개도국들이 대한 배려 없이 새로운 WTO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기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EU 국가들 중심으로 주창되었던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농업의 비교적적 기능(NTC)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인 케냐즈 그룹국가들과 일부 남미 및 아프리카국가들이 보호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따른 우려와 반발이 있었으나 많은 개도국들이 농촌 빈곤퇴치, 식량안보, 고용안정 등의 차원에서 농업이 갖는 비교적적
기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음.
- 특히 저 1단계협상과정을 통해 그 동안 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장에 대해 개도국들에 확산되었던 잘못된 나라들의 농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보호 논리는 부정적 시각을 고려하고 새로운 협상에서 기존 NTC 그룹에 대한 동조를 규합하는 데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음.

○ 앞으로의 협상진행 양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급진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새로 출범한 뉴라운드의 틀안에서 농산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협상진행 속도를 높추고자 하는 수입국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임.

○ 이외에도 최근 들어 국제협상의 장에서 더 이상 선진국들의 들러리로 머물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개도국과 기존의 협상주도서력인 선진국간의 대립 양상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 때 금년 중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특별한 결론 도출은 어려울 것이나 금년 11월에 카타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포괄적인 뉴 라운드 협상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여 협상 과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결론 도출과정에 돌입할 전망임.

○ 그러나 아울러 WTO 체제에서 진행되는 농산물 협상의 기본 목표가 농업분야에도 자유무역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무역질서의 구축에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결과도 그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의 협상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됨.
따라서 우리 경부는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 규범 및 무역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육성을 통해 차기 협상에서 도출될 협상결과
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또한 대외적으로는 수출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급격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 균형되게 반영되는 협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EU,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수입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이와 같은 경부의 대내외적 노력과 더불어 농민, 소비자, 농업
관련 기관, 학계 등 국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협을 합쳤다면 여성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임.
부록

○ 2001년 1/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2001년 1/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1. 개요

○ 1분기 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은, 을해 시행되는 논농업직접지원제도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농업인들이 기대감과 함께 계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농협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시작되면서 조기 파열 현상이 빚어져 지역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또, 각 지역에서 농업법인 부실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농업분야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전북지역 주민들이 조기 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3~4월 황사에 의한 구체적 난관시 스타 유입 차단에 각지방자치단체가 방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도 집중 취급됨.

○ 4월 들어서는 일본이 신선체소 수입 검역을 강화하면서 경남과 전남 지역 동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채소 농가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었고, 충북과 경남, 전남지역에서는 살 재고량이 넘쳐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집중 취급됨.

1) 이 자료는 농경분석실 김동원 전문연구원이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방일간지의 농업관련 이슈를 선정,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의 기초는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이슈'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이 자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dongweon@krei.re.kr로 연락바랍.
2. 주요 이슈

○ 논농업직접자재개선어론
- 전남을 비롯한 각지역에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직물제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있었고, 경북지역에서는 대상농들이 12만1천여ha에 달하나 시·군별로 전담인력은 1~2명에 불과해 농지마련부 정비 등 선정작업 차질을 우려함. 또 언론들은 까다로운 지원조건에 비해 지원금은 적어 신청이 제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지원조건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대상 작물 확대 요구
- 3월부터 사과와 배에 시범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해, 충북도가 이지역 주작물인 포도와 복숭아까지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당국에 전미한 것을 비롯해 경기과 전남지역 농업인들도 평소 농비중이 높은 벼를 우선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 지역에서 보험 대상작물 확대 요구가 있음. 한편, 지난 3월 중순부터 가입 신청이 들어간 농작물 재해보험의 20여 일이 지난 4월초 경기 4건, 충남 23건, 전남 47건 등으로 가입률 기준 1%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난금사업’ 논란 지속
- ‘중단없는 재난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전북지역 언론들은 3월중순 정부가 재난금사업에 대해 부분개방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만경구역 개발이 지연되면서 신항건설 등 각종 연관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분리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한편, 재난금 수질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급강호를 확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충청권 오염탄처와 주민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 대책위를 구상했고, 충청권과 전북지역 언론은 논설 등을 통해 상대지역을 비난함으로써 재난금사업이 지역갈등으로 비춰질 우려도 지적됨.
농업법인 구조조정 여론
- 전북지역 농업법인중 27%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운영실적이 없는 1백37개소에 대해 전북도가 자진해산을 권고했고, 경남지역에서는 1백68곳이 운영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업법인 부실문제가 부각되면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 여론이 확산됨.

농축협조합장 선거 혼탁
- 전남지역 2백2개 농축협 가운데 올해 72곳을 포함해 내년초까지 2백여개조합이 조합장 선거에 돌입하는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시작됨에 따라 연초부터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과열 혼탁 현상이 발생, 지역사회 분열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한·칠레 FTA 농업분야 협상 제의 촉구
-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각지역 농민단체 등은 농산물을 불로소 공산품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진행중인 이 협상은 가속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 농업분야 협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3월 하순 곳곳에서 시위를 벌임. 특히 과수농가가 많은 경북지역과 제주지역 언론은 이 협상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 특집을 다루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지역자치권의 대책 마련도 촉구함.

쌀 재고 넘쳐 RPC 경영난
- 충북지역에서 3월말 기준 쌀 판매량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18%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남지역에서는 38개 RPC 쌀 판매량이 전체 수매량의 30%에 그쳤고, 경남지역에서도 생산님이 이하 출혈판매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20~30% 줄자 각 지자체가 소비촉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고 보도,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올 추곡수확가가 4% 전에서 결정되고 수매량도 줄것으로 여상객 제고가 많은 농협들의 매입기피가 이어지고 농업인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전망함.

◇ 대일 신선체소류 수출 비상
- 4월 들어 일본이 수입체소류 검역을 강화하면서 통관지연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는 55% 달하던 대일수출 비중을 10% 이하로 줄였고, 전남과 경남지역에서도 수출량을 조절하면서 내수출량을 늘려 국내시장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생산농가들 우려함.

◇ 논 매물 증가
- 최근 살 재고량이 적정치를 초과하면서 판로에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쌀농사 포기 농가가 늘어 논 매물이 강원과 충남 일부지역에서 작년 같은기간보다 20%정도 증가해 평당가격은 30~40%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호주산 생육수입 논란
- 국내 육가공업체가 최고기 시장 개방 후 처음으로 호주산 생육우 7백마리를 수입키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수입업체가 경기지역 10여개 농가와 위탁작약 계약을 체결하자 이지역 농민단체와 농수산 농가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 수입업체와 계약하는 대형 육가공에 대한 불매운동을 친정하는 등 생육수입을 들러싼 갈등이 표면화됨.
3. 지역별 농업 관련 보도 내용

3.1. 경기도

○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버농장’ 통해 올해 3월말까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실적은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을 포함해 모두 1백개 업체에서 4천1백여만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배 신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농협 지역본부는 포천과 여주 등 2개 지역의 3개마을 20여 농장을 대상으로 야생화, 재래감곡종자, 토종닭 등을 한데 묶은 ‘토종 금락지’를 조성해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4월 초 발표.

○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속박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되거나 훈손된 농지가 9백29건 45만7천여평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시군의 농지 전용 허가와 사후관리 업무 이월화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

○ 경기도는 올해 1천43억원을 투입해 이천과 안성 등 8개 시군 14개 지역의 농업조화 용수로를 정비하고 1천2백56ha의 상습점수 농경지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발표.

○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비 감당이 어렵고 최근 농산물 가격까지 하락하자 시설비가 필요없는 상추, 대파 등 발작물로 교체하는 사례가 용인 등 각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음.

○ 올 초 한파 영향으로 안성지역 9백90ha 포도재배 면적중 50% 이상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대부분지역 포도나무 결발여상 고사한 것으로
로 나타나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3월 들어 이미 3~7%의 사료값 인상조치를 단행했던 수원과 안양축협 등 경기지역 사료업체들이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혼란 손피해가 커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3월 하순 황사에 의한 구제적 방제를 위해 가축시장이 점점 펨쇠조치되자 양축농가들 사이에 공판장에 출하하면 저값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매출을 하지 못한 농가들 사료비부담 증가와 영농자금 마련에도 애로.

○ 연천지역 초·중학생수가 최근 5년새 가장 10%,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지역 농촌소재 인문계고등학교 70% 정도가 을 전입생 모집과 경원 미달로 나타나 도시학교 본교화 우려감이 평배.

3.2. 강원도

○ 매년 막대한 산불피해를 겪어온 강원도가 산불 피해가 복구에 2005년까지 9백39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우선 올해 총 9백13억원을 들여 경관림과 죽 이복원 조림, 사방맞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 인제지역 농가 흙방 부채 평균액이 3천7백51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상호금융이 2천1백97만원에 달해 농업 경제자금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녀 학자금 등 가계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양양지역에서는 최근 살가격 하락과 영농환경 악화로 농사를 포기하거나 규모를 줄여야하는 농가가 늘어나 2월 초 전담 급매물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다 20%정도 증가, 평당 가격은 30~40% 정도 하락한 총액에서 시계 행성.

○ 강원지역에서는 올해 37곳 등 내년까지 전개 1백개 농협용 88곳의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 선거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조기 과열현상이 빚어져 지역 갈등 요인으로 작용.

○ 강원지역에서 정부가 지원한 3백21개 영농조합법인 중 10%가 넘는 58곳이 운영중단 상태에 있고, 2곳은 부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영농조합법인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강원도는 2년 면적보다 빨 빠른 비중이 큰 지역 특성을 감안해 발작물 직 불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군과 공동부담으로 시범작목과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음.

○ 강원도는 올 4월 4백20억원을 투입해 동해에 4만평 부지의 임산물 물류센터 조성키로했으나 사업부지의 용도와 관련해 건설업체가 소송에 휘말리는 비람에 착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형성지역에서는 한국통신이 올만지역까지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가입자가 거의 없어 유선방송 등 인터넷 간선망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전기가 수입 논란으로 국산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강원도가 농가에 40 천대를 장려하면서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17.9% 늘어난 1만9백81톤에 달하나 감천 중북산 영향으로 국산공 가격이 폭락해 농가 피해 우려.

○ 강원지역 한우사육 농가들이 쇠퇴기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악영
항이 나타나지 않자 한우 변식에 대한 의욕이 커지면서 엄소가 황소보다 5배 이상 가중 17만원이나 더 비싸게 견제되는 등 한우사육 활기.

○ 광우병과 구제역 우려 증가면서 형성축협의 경우 2월 중순께 매출 2백만원 대까지 떨어졌으나 4월 초 4백만원대까지 회복한 것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보다도 국산 중심으로 빠른 회복.

○ 삼척 등 강원도 농촌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결과 14개교는 신입생이 전무하고 23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1명에 불과하는 등 농촌지역 교육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 강원지역에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육 45%에 달하고 있고, 이중 45개교는 교육생이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교육 공동화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 교육부가 지역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원지역 국립학교 34곳을 특수지역 해제, 급식비와 교원수당, 교사 가산점 등이 없어지게 교사의 근무기피 현상 심화로 농어촌지역 교육 황폐화 우려.

3.3. 충청북도

○ 충북개발연구원이 농가경제동향을 조사해 2월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작규모 2ha이상 농가는 높은 소득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0.5ha 이하 2ha이상 농가는 높은 소득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0.5ha 이하의 영세농가는 낮은 소득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고학력 농가가 겪고 있는 농가연도로는 소득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에서 3월말 기준 까면 패배액이 지난해보다 13% 줄었고, 가격경쟁력 뒤집 농협은 최고 6%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RPC를 운영하는 농협 대부분이 경영위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
· 충북지역에서 올해 전체 88개 농·축협중 조합장 선거가 처리되는 곳은 36곳으로 연초부터 인선공격 등 불법 행상이 난무하면서 조합원간, 지역 조 직간 분열현상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었음.

· 충북지역에서 97년 이후 IMF 귀농자가 7백75명에 달했으나 이들중 개취업과 농사실패,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2백여명이 다시 도시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음. 또 81년 이후 지정된 충북지역 농민조합자 1천3백17명 가운데 11.7%인 1백55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탈락원인은 경영이 절반에 가까운 45.1%에 달해 지원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3월 초 충북농업기술원이 영농체계교육 참가자 3백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 전망에 대해 5%가 “희망적”이라고 응답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도 79%는 “자신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값 폭락과 폭설피해 복구 계획 등으로 농사철 영농자재 구입이 급감해 2월말 현재 작년 같은기간 비해 4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 채소계열 농가들이 최저가격보장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계약한 무·배추는 4만3천통 중 42%인 2천42톤에 그쳐 결과적으로 수급조절에도 차질을 봤다고 지적하고 최저가격보장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3월 하순 충북도의회는 한-칠레 FTA 협상이 타결되면 과실류와 축산물 대량 수입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협상공단을 축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각계에 발송했고, 청원지역에서는 민간 RPC들이 최근 쌀 가격 하락과 판매량이 지난해 보다 최고 40%까지 줄면서 벌 수매대금 수익원을 체불, 농가 영농자금 마련 치열 호소.
○ 환경오염 등 영향으로 충북지역에서 가축 질병 발생이 지연해 2만9천6백39 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생충' 관련 질병도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충북농가의 경제적 악화 요인으로 지목.

○ 충북지역 농촌에서 농공단지의 산업체수 유출과 축산폐수 방류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1백50여개 학교는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먹는물 관리에 비상.

○ 충북지역 농촌의 소규모 학교와 파출소, 보건진료소 등이 홍수에 묻을 닦은 가운데 최근에는 읍면사무소 기능 축소를 골자로한 주민자치센터까지 추진되자 농업인들이 이동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반발.

3.4 충청남도

○ 충남지역에서도 농어민후계자 포기자가 수출해 전체 1만4천7백80명중 148%인 2천1백82명이 농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전업농 육성사업도 지원자가 매년 배정인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 충남도는 예산 5백22억원을 투입해 각종 농산물 신규품 개발과 농업경영 컨설팅, 전문농업인 양성 시설 등을 갖춘 농업태크노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3월16일 예산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 충남지역에서는 재난금사업과 관련해, 농업기반공사가 재난금 호수내 엄부 저거를 위해 금강호 물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대전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금강 중하류의 심각한 물부
촉과 수질악화 우려된다며 격려 철회를 촉구, 세만금 사업이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양상.

○ 최근 산재고양 농가와 가격하락에 수입개방 불안심리까지 겹쳐 태안지역 수도작 농가들이 경기규모를 줄이면서 눌 매출이 늘어 2월 중순 논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최고 10%까지 하락함.

○ 충남도는 농특산물 사이버시장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품목별 농산물 생산자 구성과 함께 농산물 판촉지원을 위한 도메인네임 확보에 들어갔음.

○ 충남도는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체험학습 등 13개 분야를 특성화한 ‘농어촌초등거점학교’ 88곳을 육성키로 하고 올해 41곳을 우선 지정한다고 발표.

○ 천안지역에서는 농가도우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농촌 노임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출산할 만한 연령대 여성이 실직 경력에 투입되는 경우도 드물어 지난해 시행 이후 고작 5명만 신청, 예산 2천만원중 9%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농촌여성 1천5백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2%가 과로와 산후조리 미흡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산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46.9%에 달해 농촌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3.5 결론

○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늦춰지면
서 전북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는 연일 사업추가를 주장하는 지위와 집회를 갖는 등 조직의 관심을 보였고, 3월 초 방조제 공사와 건축부문을 분리 추진하는 방안이 나오자 민경구역 개발 지원방안 산학협의 등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2백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오염원인 축산폐수 근절을 위해 10년간 1천6백37억원을 투입, 농가 분뇨처리 수준을 100%까지 올리기로 하는 중합대책을 3월 중순 발표.

○ 친환경농법 등으로 품질증 보으면 좋으나 지속가능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많게는 2배까지 빠를 수 있어 되자 전북지역 농업인들의 관심이 급증, 지난해 1백26개 농가와 각목본에서 쌀과 사과, 상추 등 39개 품목에 대한 품질증을 확득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에 브랜드쌀이 시군마다 10여개씩 난립해 전시 1백32개에 달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에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인인 브랜드는 30% 정도인 42개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품질인증 없이 유통되고 있어 오히려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

○ 김제지역에서는 산 수입개발에 대한 우려와 최근 산 가격 약세까지 겹쳐면서 농노사 포기 농가가 늘어 농 매출 급증, 농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7~1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지자체에서 전주 등 4곳에 개설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개설 후 2년이 지났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3곳은 이미 폐쇄조치된 가운데 입주 농업인들은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한 사업만 믿고 투자했으나 이제와서 폐쇄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
전북도가 이지역 영농조합법인 7백52개와 농업회사법인 2백87개 등 모두 1천38개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중단된 상태 이거나 생산실적의 없어 부실법인으로 분류된 곳이 전체의 19%인 1백99개로 나타났다고 발표.

전북지역 RFC중 농협이 운영하는 29곳이 책임의식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난해 23여건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18곳은 14여건의 직자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음.

전북지역 농촌특산단지 1백64곳에 1천6백여 농가가 참여해 20여개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동남아와 중국산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수도 감소해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함.

전북지역 농산물가공공장 89곳 중 3월 현재 11곳은 폐업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도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활로 못잡아 유통구조 개선과 다자인 개발 등 객관 수입산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 김제지역 정미소가 미곡종합처리장과 자가도정기 보급 확대로 사양근에 점어들면서 10년새 2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3월 하순 전북농협지역본부는 지난해 부실조합으로 판명된 23개 조합중 남원, 김제 등 5개 축합과 2개 농협을 우선 협병 조치하고 나머지 21개 조합도 경영실사 거쳐 올 7월까지 협병키로 하는 등 구조조정 단행.

전북지역 축산농가의 전업화 경향이 두려해 지난 10년 동안 소 사육두수 가 3.4배, 돼지는 11배나 증가한 반면, 부업형태의 한우 농가는 50%, 젖소는 7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북도는 올해 농촌 량계경비 등 농어촌수자원환경개선 사업에 3억6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발표.

3.6. 결론

○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백22개 회원농협의 200여년간 벼 재고량이 3
백51만2천여 가마에 금액으로는 1천9백78억원으로 달해 자금압박이 심화
되고 있다고 분석한 가운데, 도정시설 없는 일반농협은 자체공매를 실시하
고 RPC 농협은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고처리에 총력.

○ 전남지역 농협인들은 올 3월부터 사과와 배에 시범 도입된 농작물재해보
험제도와 관련해 대상 작물을 종속해 피해가 큰 벼 등 주곡작물과 최근
불규칙한 가상으로 재해가 찾아와 오는 재소와 화훼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주장.

○ 전남지역 98개 농산물 가공공장 대부분이 채산성 높은 차와 음료류에 집
중해 연매출 5억원 미만이 73%에 달하고, 올 들어 16개 공장은 퇴출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전남도는 우량업체 지원 강화를 골자로한 활
성화 대책 마련.

○ 전남도는 올 농산물 수출목표를 2억3천1백만달러로 잡고 현재의 수출전문
단거 35개소를 2004년까지 50개소 늘려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광양과 일
본간 직항로도 조기에 개설시키로 했다고 발표.

○ 전남도는 대학과 농가를 연계해 실질적인 후계영농인으로 육성하는 ‘학자
농업인제’ 도입키로 하고 우선 전남대생 등 11명을 선발, 1인당 최고 2
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
○ 전남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여건 악화로 농업투자를 기피하면서 영농지재 구입이 콧속으로 감소해 3월말 현재 작년 같은기간 비해 비율이 27% 감소한 것을 비롯해 농기계도 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능성살이 인기를 끌면서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운영쌀’, ‘머드쌀’ 등이 높은 가격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가에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 기반 지자체들이 기능성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

○ 전남 지역 농민단체들은 한-칠레 FT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월말 전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데 이어 4월 중순까지 나주와 보성, 강진 등지로 들여 릴레이 집회를 강행.

○ 전남도의 산림면적인 전국의 11%에 해당하는 70만ha에 달하나 60만8천ha에 달하는 사유림에 대해 단순한 소유적으로 방치하면서 경제적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

○ 산림보험체를 실시한지 7년째를 맞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되지 않아 일선 시·군 공무원조사 내용을 모르는 등 제도사항에 따른 과적 초과 미흡으로 전남지역에서는 가입실적 전무해 신복이 피해 복구 등 차질.

○ 4월 초 일본식이 “오이 재고 많다”며 계약물량 수입을 일방적으로 유치해 광주지역에서 계약재배한 농가 5kg들이 3천여 상자에 대해 처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일본의 신선생소 수입 검역 강화에 대응해 수출 물량조절과 단일 품목으로 농산물 선정 등 대책 마련.

○ 전남지역 과예재배농가들이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로 재배면적을 줄여 수박의 경우 지난해 보다 1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농배추도 10.3% 감소.
○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한-중 마늘협상 타결에 따라 양파로 적목전환 늘어
개배면적이 전년보다 27%나 급증했고, 과잉생산에 소비감소까지 겹쳐 가
격은 전년보다 30% 가량 하락한 가운데 농협이 긴급수매 나섰으나 재고
많아 하락세 지속 전망.

○ 해남지역에서는 균-농협-농가 3가 합동으로 내년부터 2006년까지 거울배
추 가격안정기금 2백억원을 조성키로 하는 등 배추 가격안정 종합대책 마
렌.

○ 전남도에서 생산하는 ‘강진 백미’, ‘청축굴 한우’, ‘양파 한우’ 등 특별사료를
이용한 브랜드 한우가 인기로는 낮아 판매량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홍보 강화와 함께 유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전남도는 한우산업안정대책 일환으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등 45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51% 증액된 7백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월 하순
발표

○ 광주전남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이지역 한육우 사
육두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2.3%나 줄어든 반면, 잡소와 돼지는 각
5.8%와 1.4%씩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3.7. 경상북도

○ 경북도는 도-농간 정보화작차 해소를 위해 2005년까지 3백35억원을 투입
해 면단위 산간오지어 ‘인터넷 빌리지’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우체국 등 공
공시설에 ‘인터넷 포라자’ 설치도 확대키로 하는 등 ‘인터넷 새마을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
경북지역에서 지난해까지 한 명도 없던 농협 여성이사가 올해 10명이나 탄생한 것을 비롯해 36명이 불과하던 여성대의원도 올해 3월 현재 50명으로 늘어나는 등 농협에 여성파학자가 두각을 나타내 여성농업인 복지향상과 권익전당에 한층할 것으로 기대.

경북지역 농민단체들은 3월 하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농업분야 협상이 타결되면 전국최대 과수 주산지인 경북지역 농업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저지를 위한 대경부 투쟁 전개.

4년 연속 종과목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대구와 경북지역 18개 RPC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72억원이나 줄어 개소당 3천5백만원 손실 기록, 한편, 경북지역에서 지난해말 현재 쌀 생산으로 조수익 1억원 넘긴 농가가 23가구에 달하고 영농경영체도 82개 업체로 나타나 쌀 산업이 기업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경북도는 농업을 점단 생물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안동에 3만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2008년까지 연구인력과 점단시설 확보해 유전공학 등 기초연구에서부터 작물제품 및 육종활용 기술개발 등 실용화 분야까지 중점 연구시도 한다고 발표.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 신청을 받고 있으나 대상작물 한정과 중소부족으로 3월말 현재 경북지역에서 가입농가는 2만4천여 대상농가중 1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경북농업기술원은 쌀목수 푸랑팜종 육성 등 58개 농작물에 대해 지역학교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교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요작물 동호회를 운영하는 등 농업을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수립.
○ 경북지역 농업들이 가액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거쳐지 않는 등 전반적인 부실 경영으로 지난해 34개 조합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북농협지역본부는 올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를 전년보다 44% 늘려 조합재산 보호에 나선다고 발표.

○ 울릉군 경국적으로 산불이 지난해 같은기간 비해 27.3%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은 3월말 현재 68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4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규모도 1백34ha로 2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

○ 경북지역 과수농가들이 최근 과일값 폭락으로 작목판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 1천84ha로 97년 대비 50%나 감소했고, 증가세를 보인다 포도재배면적도 감소세로 반전되었음.

○ 경북지역에서 사과 수출이 활기를 보이면서 울릉군 1월 말 현재 일본, 동남아 등이 2천50톤 수출실적을 보인 것을 비롯해 2~3월에도 수출에 호조를 보여 작년 같은기간의 2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 대구와 경북지역 3백여 한우사육 농가는 3월 초 ‘한우사육전업농협동조합’을 설립, 한우사육농가의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발표.

○ 경북지역 53개 농공단지 가운데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15개 공단 16만 2천여평이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단 입주업체 중 휴폐업 업체도 91곳에 달해 농공단지가 악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

○ 의성지역에서는 이농현상 심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18개 읍면 가운데 10개 면이 인구 3천명 미만이고, 3백99개 농장 주민 1백명 미만도 1백5개나 되어 행정구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
전국적으로 농촌지역학생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에서는 경기 첨제로 파산, 심각한 출산 인자들이 조부모나 친구집에 돌로 전입해 취학하는 경우가 늘어 영양, 안전 등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이 증가하는 기현상 발생.

3.8. 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영농조합법인 6명과 농협회사법인 24명 등 8명의 농
업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병68곳은 생산실적이 전혀없이 운영중
단 상태가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 지원을 받은 5병72곳 중 42곳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거창과 합천 등 경남지역 RPC는 2000년산 쌀을 1포대 생산원가인 4
만1천6백원보다 1천1백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출찰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
량은 지난해보다 20~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농협 통계에 따르면 농가별 RPC 판매액이 올 3월까지 전국적으로는 41.6% 감
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경남지역은 18억4천4백여원으로 전년보다
54.9%나 감소해 전국(63.5%), 제주(57.1%)에 이어 최대 감소율 보임.

의령지역에서는 개별농가에 대한 자가도정기 보급확대와 RPC 이용이 늘
면서 양곡도정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최근 5년세 24가소가 휴·폐업한 것
으로 나타남.

경남지역 신선채소 농가들은 최근 일본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긴급수입
저항조치를 발동키로 한 가운데 한국산에 대해서도 4월 들어 검역을 강화
키로 하자 통관지연에 따른 가격 폭락과 현지 크레임 발생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우려.
○ 경남도는 단감 재배면적이 2천2백ha로 적정면적의 2배나 달해 과일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격당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올해 1백ha를 줄인다는 계획 하여 평일 5년간 2~15만원까지 지원로 했다고 발표.

○ 경남지역에서는 3월 하순 최고기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소가격이 한달 새 15만원 내렸고 도축도수는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돼지값은 1백kg기준 미리당 두달째 8.2% 오른 것을 비롯해 닭 가격도 9.4%나 올라 축종별 희 비 교차.

○ 최근 농촌경제가 악화되면서 농가부채로 인한 연대보증 피해 등의 민사상 담보수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9백17건에 달해 2년전보다 50%나 증가했으나 법률상담 인력이 부족해 농업인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3.9. 제주도

○ 제주산 농산물의 품류비가 서울도매시장까지 톤당 평균 20만원대에 달하 고 있는데 이중 항공비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2백40 억원을 공중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해 타지역 농산물과 가격경쟁력에서 열 세어 있다고 분석.

○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말 현재 농지가 전년보다 5백ha나 늘어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량농지 보전과 개간을 통한 발 면적이 늘었기 때문으로 돌이.

○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경기침체와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자금난에 심화된 농협대출금 연처비율이 지난해 말 3.91%에서 두달째 5.49%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음.
제주지역에서도 능밭경영에 '여성모시기' 바람이 일어 20개 협원농협 전체 조합원중 여성조합원이 20.8%로 전국 평균 17%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별 여성분과위원회를 전 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기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8개업체가 농산물가공공장 설립을 신청한 반면, 올해는 3월 현재 2개업 신청에 그쳐 농산업 창업 열기도 시들.

저주지역 감귤산업이 99년에 이어 적정생산이 어려진 지난해에도 가격이 폭락한데다가 수입개방 압력 등 악재가 겹쳐면서 1월 한달간 부격이 감귤원 페인 생산접수 결과 당초 계획물량 2배ha를 축소 초과한 3배59ha가 신청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저주도농업기술원이 화학비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ha당 3배85kg을 시비한 것으로 집계된 전국 평균의 2.3배에 달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10배 여 이른 것으로 나타나 토양 산정확 등으로 인한 해거리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분석.

제주도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천8백 97억원을 투입, 승아기 생산기지 1백11개소 조성 등 전업목장을 집중 육성하고 바이오테크를 이용한 우량승아기 생산도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종합 대책 마련.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 말까지 타지역 축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4월 초 발표.